朝鮮日報 夕刊 二日(月)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濟

利權讓渡問題의 그後展開

伊의『에』國占領으로 利權讓渡는解消
一九〇六年英佛伊協定違反
伊太利官邊의見解

뭇솔리니首相

【羅馬一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가 全領土의 太半에 亘한 利權을 英米資本團에 讓渡하엿다는 報道는 伊太利政府當局에 對하야 全혀 靑天霹靂이엇는데 伊太利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在公使빈치伯으로부터 詳細한 公報이업다는 理由로 一切 公式發表를 避하고 잇스나 消息通의 見解를要約하면 如左하다

一、英國政府는 今回의 利權交涉에 全혀 關知하는바 아니라고 言明하고 잇스나 이것은 참으로 놀낼만한 일이다 勿論 如斯한 利權讓渡는 英伊兩國間의 條約에 依하든지 一九〇六年의 英佛伊三國協定에 依하든지 미리 佛伊兩國의 諒解업시 讓渡될까닭이업다

一、今回의 利權讓渡는 表面은 石油와 其他 天然資源의 開發을 目的으로 한것이나 事實上 이것은 에디오피아政府를 財政的으로 援助하게 되는것은 疑心할 餘地가업다 따라서 萬一 今回의 利權問題에 英國이 關與하엿다면 이것은 英國의 重大한 非友誼的行動이라고 아니할수업다

一、如何튼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皇帝의 如斯한 策謀는 一切 關知할바아니오 旣定軍事方針을 遂行할것이니 利權地域一帶를 伊太利가 占領하게되면 에國皇帝의 窮餘의 利權讓渡等은 一擧에 一片의 空文이되고 말것이다

一、英國政府는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바-톤氏에게 訓令을 發하야 에디오피아皇帝에게 對하야 利權讓渡를 留保하도록 勸告하기로 決定하얏다고 하는데 英國政府의 如斯한 和協的態度는 伊太利의 輿論과 政府의 態度緩和에 資하는바 重大할것이다

一、如何튼 伊太利政府는 에디오피아駐箚公使 빈치伯으로부터 詳細한 公報에 接하고 英國駐在大使 그란디氏로부터 英國政府의 立場에 關한 明確한 報告가 잇슨 다음에 態度를 明白히 하게될것이다

利權讓渡取消는 에國서斷然拒絶?

【電通아디스아베바一日發】에디오피아의 英米財團에 對한 石油利權讓渡에 關하야 英國政府가 에디오피아政府에對하야 이取消를 勸告할것이라는 報道가 傳하고 잇는데 當地官邊側에서는 右報道에 對하야 如左한 見解를가지고잇다 傳하는바와 가튼 英國政府의 抗議가 잇더라도 今回의 石油利權 讓渡는 벌서 이것을 取消하기는 不可能하다 생각건대 英國政府의 抗議란것은 아마 伊太利에 對한 一種의 말하자면 儀禮的意味의 제스추어에 不過한것이다 그리고 今回의 利權讓渡는 何等 에디오피아 獨立保障에 影響을 與하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모런 條約違反等의 말을들을 性質의것이 아니다 抗議는 아마 二日當地駐在의 英國政府의 씨드니 파론氏로부터 우리側에 提示될것으로 豫期된다 에디오피아政府로서는 以上의 理由로 이것을 拒絶할것이다

利權讓渡報道
伊政府機關紙不信

【電通羅馬卅一日發】에디오피아 石油開發利權讓渡說에 關하야 伊太利政府 機關紙 쪼르나레 디 이탈리아紙主筆 가이다氏는 今日의 社說에서 如左히 論하고잇는데 가이다氏는 事實上 뭇솔리니首相의 代辯者이므로 關係側의 注目을 끌고잇다 今回 傳한 에디오피아의 石…

에디오피아政府 特許狀正文發表

【아디스아베바一日發聯合】에디오피아政府는 西南오가덴州以下 國境 루돌프湖 東南으로부터 伊領소말리랜드에 沿하야 에디오피아의 背後地를 通貫하야 北部國境에 至하는 에디오피아帝國領土 東半部分의 天然資源開發利權讓渡의 特許狀正文을 發表하엿는데 右正文의 要旨는 如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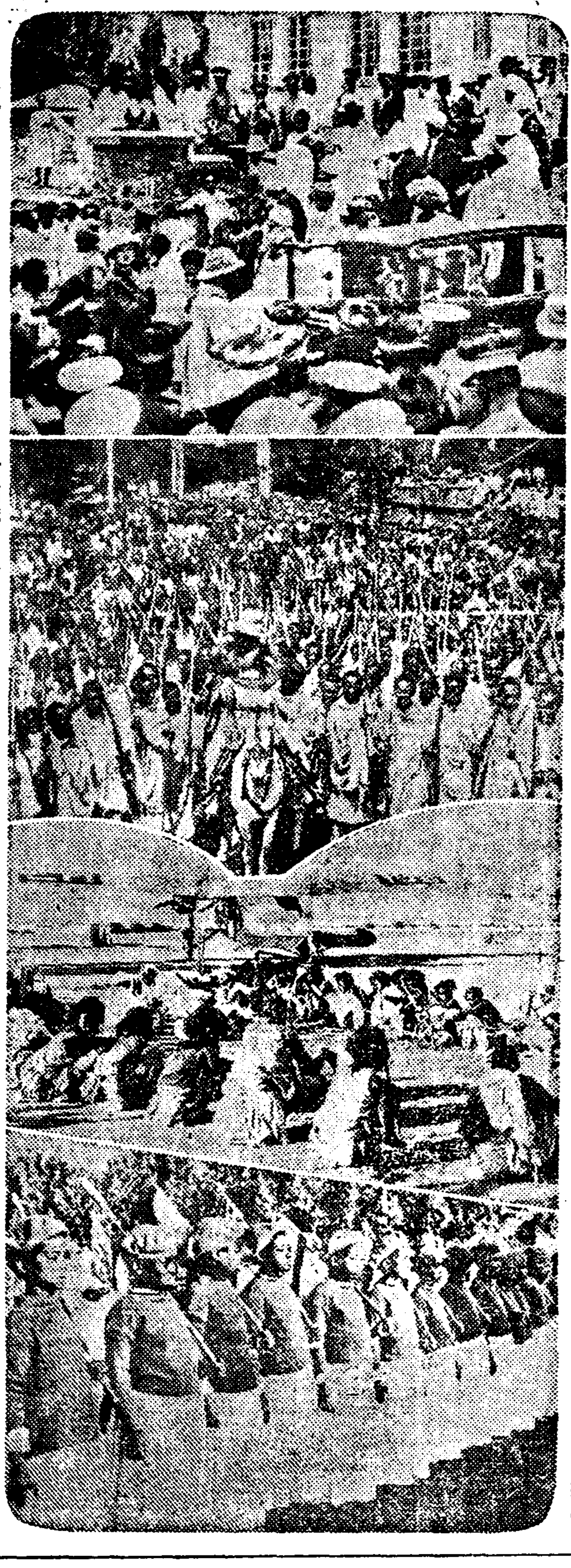
一、利權授受當事者는 一方에 에디오피아 他方 一九三五年七月十一日附로서 米國델라웨어州에 設立된 阿弗利加探査開發會社로함

一、에디오피아政府는 阿弗利加探査開發會社에 對하야 前記附屬文에 規定된 에디오피아領內에서 石油、揮發油、天然瓦斯、地蠟、其他一切의 瀝靑鑛과 鑛水含有의 沃度等을 探査、試堀、穿孔、採堀、精製하는 排他的利權을 賦與함

一、右採堀物의 所有權은 阿弗利加探査開發會社에 屬함

一、右特許期限은 七十五個年으로하고 七十五年 經過後는 會社所有의 一切의 建築物 軌道、道路、油送管、鐵道工場、機械用器具類는 모다 에디오피아政府의 所有에 歸함

一、會社는 利權享受後 一年後에 地理調査에 着手하고 五個年以內에 試堀을 開始하야 五個年經過後는 에디오피아政府의 需要를 充當하고또旣往의 阿弗利加의 輸出需要를 充足할수잇는 程度의 油田開發을 할수잇기까지 前項의 穿孔操業을 繼續하기로함 로 充分한 地域에 亘한 試掘을 繼續하기로함


非常時에디오피아—(一)開戰을 압두고 上京한 酋長들로混雜한 에디오피아宮城 (二)裸足軍을 引率하고 待命次上京한 地方酋長軍 (三)飛行機를 圍繞하고 祈禱를 嘲笑하는 黑人軍 (四)少女들에게 激勵된 非常時의 雰圍氣

非常時에對應할 伊根本方針決定

【羅馬一日發聯合】第八十八回聯盟理事會는 伊에兩國紛爭重大化를 압두고 드듸어 來四日 쥬네브에서 開催되고 歐洲政局의 動向을 決定할 外交戰이 이에 展開되게되엇다 伊太利政府는 八月二十八日 뭇솔리니의 國務會議의 結果에 基하야 國策을 確立하고 外交、軍事、經濟、各分野에 亘하야 물샐틈업는 準備工作을 完了하야 全軍即發待機의 姿勢를 示하엿다

▲聯盟脫退不辭 理事會에서 展開될 外交戰에는 알로이지男이 스스로 出馬하야佛國代表라발首相、英國代表이든無任所相의 强硬意見을 驅逐할方針이라고 보인다 伊太利政府에서는 벌서 理事會席上에서 紛爭의 全面的審議를 避할수업다는 豫測下에 着着 反駁資料를 蒐集하고잇는데 理事會에서는 에디오피아國의 除名을 主張하고 特히 左의 方針을 闡明할것으로 보인다

一、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에對한 公約을 無視하고 아직 奴隸制度도 廢止하지 아니하엿다 理事會는 速히 에디오피아를 聯盟外에 放逐할것이오 伊太利、에디오피아兩國政府를 同一水準으로 取扱하는것은 適當치안타

一、에디오피아政府는 幾多의 條約 乃至 公約도 無視하고 不絶히 伊太利政府에 敵意를示하야 마지아니한다 伊太利政府로서는 에디오피아國禁止에 國際聯盟의 支持를 要請할터이다 聯盟이 支持를 與하지 안을境遇에는 獨力으로 適正工作을 斷行하겟다

一、理事會가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制裁規定을 適用하기로 決定할 境遇에는 伊太利政府는 聯盟을 脫退하고 또 經濟封鎖其他의 制裁行動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軍事行動으로서 對抗할 決意이다

▲東阿軍備完了 東阿에 잇서서는 國軍의 精銳二十萬은 이미 에리트리아、소말릴랜드 國境線上에 集結하고 戰車隊等 近代武器를 가지고잇스므로 雨期가 끗남을기다려 一擧에 國境線을 突破하야 異人帝國에 侵入할 作戰이다 現在 動員 待機의 姿勢에 잇는 伊太利軍은 無慮八十萬 이라고 하는데 伊太利 에서는 國軍百萬人을 整備하야 異人 帝國討伐의 間隙에 歐洲 大陸에 다시 戰爭이 勃發할 境遇에 備하고저한다 또英國政府가經濟封鎖를 할境遇에 備하고저 海空兩軍에 對해서도 待機를 指令하고 地中海上의 交通路確保를 期하고잇는데 近近海軍造船所에서는 巡洋艦十九隻、驅逐艦數隻을 完成할터이다 此等新銳艦은 空軍掩護下에 地中海作戰에 當케하야 英國政府牽制를策하고잇서서 國內航空機 製作會社는 모다 晝夜兼行으로 製造에 當하고잇다 一方 諸外國에 對해서도 大大的注文을 發하야 空軍充實에 熱中하고잇다

▲經濟戰線準備完了 一方 戰爭開始에 備하고저 各工場은 製造能力을 發揮하야 輸入을 最少限度로 限定하엿다 또 所謂鑛物制裁에 對抗하기 爲하야各鑛山坑區에서는 全能力을擧하야 軍需品鑛物採掘에 努力하고 잇스며 民間의 一切의 對外크레디트는 徵發되고 戰時所得도 一定限度에 制限하는等 經濟統制는 一〇〇%의 成績을 보이고잇다 이미 全國民은 時期가 오기前에 方今 戰爭氣分이 橫溢하야 開戰이 어서되기를 苦待하고잇는 形便이다

伊에紛爭激化로 英空軍擴充促進
軍需工場二十四時作業開始
飛行士募集도發表

【倫敦一日發聯合】獨逸空軍再建計畫에 對應하야 今春五月以來國軍軍需工場의 全機能을擧하야 空軍五個年計畫의 三個年短縮에 邁進해온 航空省은 伊에紛爭激化의 形勢에鑑하야 空軍擴充計畫을 最少年度로 促進할必要를 認定하고 航空機製作諸工場은 三十一日부터 一齊히 二十四時間操業을 開始하엿다

또 航空省은 三十一日 全國에 亘하야 飛行士의 募集을 發表하고 新建造機二千臺에 應하야 兵員募集에 着手하엿는데 一層 高級的航空兵을 養成할目的으로 今年末까지에 航空兵訓練所數個所를 增設하기로 決定하엿다

英國出動艦隊 二日集結完了
스에즈運河地帶에

【倫敦一日發聯合】一日 海軍當局着電에 依하면 三十日 스에즈運河地帶에의 出動命令을바든 地中海艦隊旗艦 엘리사베스號以下 第一戰鬪隊 第一第三巡洋戰隊等의 精銳十數隻은 各各 目的地로 向하고잇는데 二日에는 所期의 目的地에 集結을 完了하고 巨艦로드니號以下의 本國艦隊는 秋期大演習을 急遽 一週間으로 당겨서 三十一日中에 포-트란드에 集結을 完了할것으로 보인다

伊太利軍需品 積載를拒絶
케입타운埠頭人夫

【電通케입타운一日發】케입타운의 埠頭人夫는 伊太利汽船 사지아號가 東阿遠征軍에게 供給할 肉類를 同港으로부터 積載하려고 하엿던바 人道의 敵이라고 一齊히 그積載를 拒絶하고 南阿聯邦首相헬쪼그氏에게 對하야 不正한 戰爭에 貢獻함과 如한 行爲에도 反對한다는 旨의決意를示한 書翰을 보내엇다

駐英伊大使에 調査報告를電命

【羅馬三十一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 一世의利權讓渡問題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不少한 衝動을 受하고잇는데 三十一日 駐英大使 그란디氏에게 對하야 急電을 發하고 右問題 對한 英國政府의 立場에 對하야 調査報告를 訓令하엿다

油資源開發利權을 英米共同資本의 阿弗利加大陸開發會社에 讓渡하엿다는 報道는 갑작이 信憑할수업다 웨그런고하면 이는 英國政府가 干涉하지안는다는 過去數次의 言明에 背反되고 英伊間 現存한 規定에 明白히 違反되는것이다

話題解說 에國利權問題

◇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가 埃及에 滯在中인 英國實業家 리켓트氏에 致하야 에國經濟開發의 廣範한利權을 英、米財閥에 許與하는 契約을 締結하엿다는 뉴쓰가 三十日 首都 아디스아베바로부터 全世界에 떠지게 되어 異常的 센세이슌을 이르키게되엇다

◇ 連日 紙上에 報道되는바와가티 伊太利가 에디오피아에對하야 要求하는點은 經濟的利權은 勿論、政治的 支配權獲得에잇다 그리고 伊太利에어느程度의 經濟的利權을許與하고 伊에紛爭을 解決하려함은 英國도 認定하려는바이오 에國自身도 同意하려는바이다 그러나 뭇솔리니의 野心은 끗까지 에國保護領化에잇고 또이것의實現할것이 確實함에따라 에國皇帝는 機先하는 計策으로 伊太利에 强奪될念慮가 잇는利權 特히 油田開發權을 英米兩國財閥에 許與하야 伊太利의 侵略을 牽制하게 되엿다 그리하야 이計策은 相當히 苦心案出한 結論이나마치 에國皇帝의 「天來的 妙案」의 觀이잇스며 또伊에紛爭에 劃期的轉向을 보게될것도事實이다

◇ 利權許與의報에 누구보다도 크게驚愕한나라는 勿論伊太利다 境遇에 依하야는 政治的支配權은勿論、經濟的利權조차 엇지못하게 될수잇는까닭이다 그리하야 伊太利는 利權許與서는「英米에 許與한 利權은伊의占領에 依하야 解消된다」는 見解를 갓고잇는모양이다 그러나 利權許與事實이 에國政府로부터 正式發表가 되엿슬뿐아니라 처음 이事實을 否定하던 米國政府까지도 事實을 認定하게되엿스며 一日이러한 旣定事實이잇는以上 伊太利의 占領으로 이것이 同時에 解消되리라고는 미더지지안는다

◇ 여긔서 多少問題되는것은 如斯한 廣範한 利權讓渡는 一九〇六年條約에依하야 英佛伊三國의 諒解에 依할것이라 이番讓渡는 그諒解가 업서스니 만치 右條約에 違反된다는點이다 그러나 條約違反이라면 現在 伊太利의 에國에對한行動은 그全部가 右條約違反行爲이므로 萬若 條約違反이라는 理由로 에國에서 自發的으로 許與한利權이 取消된다면 그다음에올 伊太利의 實力行爲에依한 利權獲得이 正當한것으로 承認될理는 萬無할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이番 英米에의 利權許與는아즉 그將來를 速斷하기는 어렵다하드래도 何如間 伊太利에 一大打擊인것만은 事實이며 伊太利에 打擊인點에 잇서서는 에國皇帝의妙案도 認할수잇다

龍山軍隊演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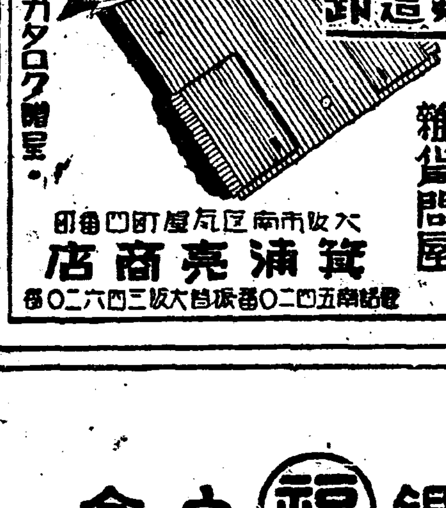
今秋의 師團對抗演習에 備하는 第二十師團 在龍山步兵、工兵兩部隊의聯合準備演習은 三日午前八時부터 四日午前에 亘하야 漢江에서 擧行한다고한다

人事·集會

▲佐脇精氏(京城電氣會社庶務部長)新任人事次二日來社
▲洪顯岸氏(漣川繁榮會長)木村義三郎氏、朴昌烈氏(同副會長)漣川地方電燈架設問題로上京中人事次來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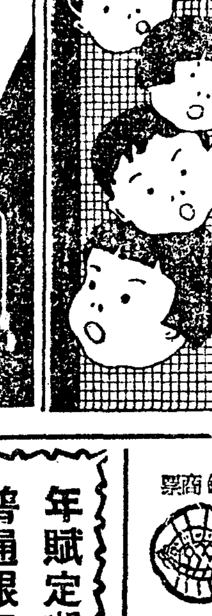
八面鋒

◇ 一俵七八圓하든 白米가 十五圓以上의 高價를 繼續하고잇다
◇ 給料生活者의 處地가 困難할 것은 이한가지 事實로도 넉넉히짐작할일
◇ 近日 製絲工 고무工의 罷業이 接踵함도 這間의 消息을 말함이아닐가
◇ 新穀이날때에도 이市勢가 繼續한다면 農民에게는 多幸일지모르나、
◇ 秋低夏高는 朝鮮米市勢의 正軌가되엇스니 이모로이에도 걱정거리는 남어잇다


TRADE MARK EXCELLENTSHIRTS TOKYO OSAKA
エム羽根印 シャツ カラー
製造卸
・カタログ贈呈・
洋裝附屬 雜貨問屋
大阪市南區瓦屋町四番町
箕浦亮商店
電話南五〇二〇番 振替大阪三六四二〇番

本欄特別一手取扱 大阪中之島 日本通信社

カーバイト照光燈
作業燈 特價金十三円也
瓦斯ランプ器具製造卸
中山ランプ製作所
大阪市港區尻無川筋二
電話西一六四九番
振替大阪五七一四九番


ベビードレス ベビー用品 高級子供用品
製造卸
高橋商店
大阪市此花區上福島中三丁目
電話福島一九二一番
振替大阪二六七七四番
御申越次第商報進呈

各種印刷機械 斷裁機
機械と材料
(中古機械と活字在庫豐富)
電話土佐堀六二八番
振替大阪七八一七九番
小池製作所
大阪市西區江戶堀南通四丁目

갑싸고 물건조흔 가게는
羅紗服地 洋服卸
特製OSAN
正札附現金卸大賣出 (陳列場二階)
每月商報發行見本進呈
現金問屋 ㊂
合名會社 三本木商店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電話東二七〇七·七三二一番
振替大阪二七三〇八番

氣電·瓦斯 熔接機
型錄呈
合名會社 大阪瓦斯電氣熔接機械製作所
大阪市港區九條南通三丁目
電話西五〇九〇番

金 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受信略號(ヘイセイウシ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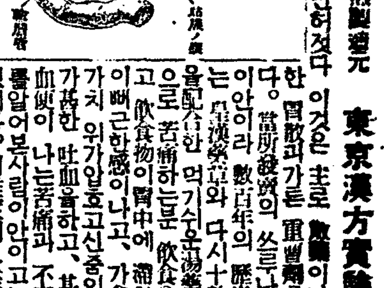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胃潰瘍과 胃酸過多症
慢性胃弱、胃擴張、胃下垂、胃痛、胃아도니-、胃潰瘍、胃가다루、慢性胃病과 常習便秘症에는
皇漢醫藥 쓰루나(ツルナ)가第一
ツルナ煎劑本元 東京漢方實驗所發賣

近來 이病이 甚히 만하젓다 이것은 主로 飮食이나 嗜好로 때문에 生하는것이다 …
廿日分四圓五十錢 卅日分六圓五十錢 送料二十錢
東京市京橋區京橋二丁目三番地의五號
東京漢方實驗所
電話京橋二九六四番 振替東京五六七四七番

咀呪할嗜眠病魔 京畿管內遂掩襲

昨日振威郡內에서六名發生

道當局失色急據出動

아직까지도 의학계(醫學界)의 수수거기의 하나로서 그 병원은 물론 전염계통 치료방법 예방법까지도 전연 알려지지안코 잇는 의문의 악병 기민병(嗜眠病)=一名 嗜眠性腦膜炎은 작금 동경(東京)방면에서 유행하고잇서서 조선의 위생당국에서도 은근히 우려하고잇든니 필경 경기도관내에서 그발생을 보게되엿다 일일 오후에 진위군(振威郡) 공의(公醫) 최종완(崔鍾完)씨로부터 경기도 위생과에 드러온 보고에 의하면 진위군과 안성군(安城郡)에서 아래와가튼여섯명의 기민병환자를 발견 하엿다는것이다 즉 진위군 송탄면 가재리(松炭面佳才里) 리영재(李榮載) 도일리(道日里) 남종회(南鍾會) 평택면합정리(平澤面蛤井里)서정근(徐廷根)오성면 교포리(梧城面橋浦里)조주희(趙周熙)와 안성군 문곡면 승홍리(文谷面升洪里) 리태만(李泰萬) 리윤식(李潤植)은모다 진찰한결과 기면병의 증후가나타낫다고한다 도위생과에서는 대경실색하야 이일아츰에 곳진주현박사(晉宙鉉博士)와 류원(柳原)의사를현장에 급히보내서 진찰을 다시 하고도 가능한데까지는 그이상의 만연을 막도록 하는한편으로 긴급협의한결과 관하일대에 공하야 아래와가티 응급예방방법을 통달하기로 하엿다 즉이병의 증후는 대체 유행성노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과비슷한데 그중요한 특징은머리가 무겁고 열이 사십도를 상하하며 또 상반신이 강직해저서 뒤로 구펴진다는것이다 그래서 그 예방법은 특히 약품의 발명은 업스나 아래와 멧가지를주의하면예방할수잇다고한다 첫재 너무몸을 피로시키지말것 둘재 뜨거운 볏을 쪼이면서 오래 일하거나 작난하지 말것 포양아래서 장시간 운동구경가튼것을 하는것도 조치못하다고한다 셋재 충분히 잠을 자 부족햇슬경우에는 낫잠을 자서라도 피로를 회복할것 그리고 일단 병에걸렷스면 곳 안정하도록하고 머리를어름으로 시키도록하며 병실은 될수잇는대로해볏을피하야 좀 그늘이 진곳이조코 환자가 배른 천이나 코를가른것을 반드시 소독을 하고 문병은 사절하는것이 조타고한다 이병의 전염계통은 아직 의학상의 정설이 업스나 대개로 모기의 매개나 또는 공기전염이 되는것이라고 추측하고 잇는데 그 사망률은 비교적 적으나 완전히 다러 나지안코 병의영향을 길이 밧는다는데 대체로 찬바람이 떨어지면 자취를 감춘다고한다

安奉線高麗門서 貨物列車또被襲

車體에彈丸命中이卄餘發

車掌一名은重傷

【新義州】 평북경찰부에 도달한 보고에 의하면 지난삼십일일오전세시반경 안동을 출발하야소가둔(蘇家屯)으로가든 제사백십구호화물렬차가 랑산성(靄山城)과 고려문(高麗門)사이 (안동으로부터 삼십팔키로의지점)를 통과하려할때 철로량쪽에 숨어잇든 토병단 약오십명으로부터돌연 맹렬한 습격을 당하얏다 총소리가 이러나자 긔관차 승무원세명은 모다 차안에 업듸린까닭에 생명에는 별고업섯스나 긔관차는 열한발의 탄환을 마젓는바 그중한발은긔관(차)틔-블 뚤코나와 물통에 구멍을 내엿슴으로 물이전부빠저스며 차장 차내는 열여섯발의 탄환이 뚤고지나갓는데 차장 천북시조(川北市助)는 오른쪽으로 총알이스치고 지나가고 또오른편 억개에는 총알이 드러와 박히는중상을 당하얏다 렬차는 물통에 물이 업슴으로 정거를 하지안흐면 안되게 되얏섯스나 발차 직후의 스피-드를 내엿든 터이엇슴으로 타력(惰力)이 잇서서 그대로 고려 문역에 드러갈수가 잇섯다 때맛츰 부근을 경계중이든 수비대에게 이사실을 보고하자 즉시 장갑자동차로 출동하얏는데 토병단은 이미 다라난뒤이엇다고한다

【新義州】전긔 렬차를 습격한 토병의 행동에대하야 조사한바에의하면 지난삼십일일 저녁 약오십명의 토병이 고려문과 랑산성 사이에잇는 애호촌(愛護村)을 포위하고 촌민들의 외출을 감시하는일방 큰 돌절구(石臼)두개를 긔차선로우에 노앗섯다 토병들이 포위를 그르고 다라난후 촌민들이 이를굴너내엿다고한다

昌城對岸에土兵

【警務局着電】팔월삼십일일 오후신시이십분경에 평북 창성(昌城) 경찰서 대길(大吉)주재소의 대안인 관전현백채지(白菜地)만주인 림장유(林長有)의 집에 계룡이 틈맹한 토병이 칠입하엿다하야 경계중이든 그곳 관헌이 알고 일제사격을 하엿스므로 그곳에 주재하고잇든 만주인과 조선인다수가 강안으로 피난하야 대혼잡을 일우엇스며 대길주재소 좌등(佐藤)순사부장이하 세명이 추격하엿는데 토병은 전부 세명으로 전긔 임장유의집에 침입하야 본인을부상식힌후 소백채지(小白菜地)벽지로 도주하엿다 지시가튀산에서는 총소리가 은은하고잇슴으로 전긔대길 주재소 좌등부장은 응원대를 청하야긔관총을 휴대하고 십여명경관이 무장단을 경찰하면서 추격중이라한다

二學期첫종소리에 校門에新秋行進曲

가로수(街路樹)를 스치는 바람이 갑작이 가벼워지드니 한울도 엇전지 더욱노파진것가태서 어느새 구월도초이틀이란다 방울쏘가 지고 총총히 고향의 품을차저갓든 학원(學苑)마다 신추(新秋)에 마든 어린학도들은 오늘부터 또다시 교문을차저모혀드러서 추어바쁜 면학(勉學)의 시간이 시작되려한다 소집(召集)의 령(令)은 쏫낫다 명랑한 상학종소리는 곳곳의『그라운드』에서 또다시 울리려한다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우울한 세상의 소식과는 딴판으로 여기만은 아름다운 래일을 준비하는어린소년의 노래가우렁차이다

漁油工場人夫 七十名罷業

◇咸北漁大津에서

합북어대진(漁大津)항에는 어유(魚油)공장에 인부어백사십명이 잇는데 그인부는 임금을 일정한 정액이업시 고기가만히잡히는때에는 임금이다소만코 고기가잘잡히지안흘때에는 임금도적어 죽어획고(漁獲高)의 여하에 의한 보수의결정제도로 되어잇슴으로 최근에인부들은 공장주에게 일정한임금제도의 확립을요구하엿는바 공장측에서는 이에응하야 발표한임금이 당치도안케적음으로 삼십일일에 그중칠십명의인부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한다

市內某署刑事五名 拷問傷害로被訴

窃盜嫌疑로廿五日留置中

一個月治療程度負傷

지난 삼십일일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는 부내모경찰서형사 태전(太田)=假名=모외네명을상대로부민병원(府民病院)의진단서를 첨부해서 『불법감금 급상해죄(不法監禁及傷害罪)』로 한통의 고소장이 제출되엿는데 그소장에의하면 고소인은 고양군숭인면신당리(高陽郡崇仁面新堂里)삼백십사번지 김달영(金達榮)(二七)으로 지난 칠월이십일 오전여섯시 삼십분경 부내 모서형사 다섯명이 돌연습격하여 아모까닭업시 구타를한 다음주갈을채워가지고 그서로 다려다가 류치한후 절도혐의로 이십오일간을 한결가티 고문취조를당햇스나 결국 이러타는 물적증거가 업스므로 지난팔월 십오일경 검거이십오일만에 방면되엿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긔 김달영의 안해는 모서원에게 자긔남편이 붓잡혀 갈때 넘어도 놀라서 임신 오개월만에 락태까지 하엿고 또고소인은 취조당시 넘어나 혹독한고문을 당햇기때문에 전신에 치료약일개월의 중상을 바든데다가 심지어 허리뼈까지 불어젓다는것이다

神兵隊事件 結審十五日頃

【電通東京電話】신병대(神兵隊)사건은 오는 십오일 예심종결이되야 그중 약간명은 내란죄(內亂罪)로 심리키로 되야 대심원(大審院)의 특별공판에 돌리기로 되엿는데 관게피고 중에는 지리한형무소 생활로말미암아 병이생기여 보석되엿든사람도만허 이사건의 주요인물인안전(安田)예비중좌와 중도승차랑(中島勝次郎)도 방금 보석중으로안전은 순천당(順天堂) 병원에서 중도는 마포행전정(麻布行田町)자택에서 각각정양중이다 그리고 보석중인룡택리랑(龍澤利郎)(二○)은 지구행정(芝區行町)동경병원에 입원중 신경쇠약으로보호를필요가 생겨 삼십일밤디시수용되엿는데 건강이 회복되면 곳보석할터이라한다

在阪朝鮮人家屋 二千四百戶再浸水

三十一日來의豪雨로

【大阪電話聯合】 삼십일일밤부터사흘간 다시퍼부은 폭우로 대판 재류동포의피해는 아래와갓다

▲朝鮮人家屋浸水二、四○○戶 그中住吉區在住朝鮮人家屋浸水九二二戶 (그住民 四、九八二名)도濁流에 휩슬려서 安危가不明

獄死同志默禱를 開廷劈頭에要請

―被告三十八名全部出廷―

全北教員事件公判開廷

【全州支局電話】전북적색교원사건 피고 삼십팔명의 대공판은 삼일 오전아홉시 전주(全州)지방법원 일호법정에서 상야(上野)재판장 주심 지전(池田)검사 립회하에 개정되엿는데 피고 조광호(趙光浩)(二○)가 개정벽두에 옥사한 한영팔(韓永八)을 위하야 삼분간 묵도를 청하엿스나 재판장의 불허로 그대로 심리에 들어갓다

一部는送局後 連累者再檢擧

名妓名唱阿片密輸事件

시내 종로서(鐘路署)사법계에서 검거취조중이던 아편밀매단으로 선 일부분만 분리하야 한상오(韓相五)리금화(李錦花)등 일곱명은 이일경성지방법원으로 송국하엿는데 남어지 박록주(朴綠珠)등의 다섯명의 기생들은 계속 취조중이며 금후에는 이들기생을 상대로놀던신사층에 검거의 손이뻐칠모양인데 이검거사건의 부산물로 이일오전려시반경에는 시내 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구십팔번지 리장정(李長亭)(三七)의부처와 장국엽(臧國葉)(二五)장석록(蔣錫錄)(二五)등의 중국인아편밀매단도 종로서원에게 모조리 체포되엿다

天氣豫報

晴

低氣壓은 西國沖附近에 七五七미리 滿洲에 七五六미리 高氣壓은 北海道에 七六二미리를 보히고日本海로부터 朝鮮에 퍼지고잇다 滿洲와 朝鮮은 天氣가조코 日本內地는 北海道는 개이고 中部는 비가만히오고 西部는흐리고잇다

昨日最高 三○、四 最低 一九、八 今日正午 二八、三

三分二以上 罷業團就業

三百餘名은態度强硬

【釜山支局電話】부산(釜山)고무공장 일천여명직공의 대파업사건은 지난달 이십칠일부터 일일까지 엿새동안 로자의 쌍방이 의연강경한 태도를 지속하여오든바 이일에 이르러서 직공의자연발생(自然發生)적이주체적약점과 또각공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여잇서서 상호간 련락단결이 효과적으로 전개되지못한데다가 경찰당국의 상당한 경계로 말미아마 천저히 직공측의 약세로 급전되여가는데 일이일 오후부터 직공측의 태도가 자못 연화되기 시작하더니 일 아츰부터는 드듸여 파업직공의 삼분지이 이상이 공장측에 서약서까지 쓰고 취업을하고 말엇다 그러나 남직공 백여명과 녀직공 삼백오십여명은 아직것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끗까지 항쟁을 계속하고 잇는 중인데 금후의 추이가 자못 주목되는중이며 이일에 녀직공두명이 더 검거되여 이 파업으로 경찰에 피검된 직공은 남자세명 녀자여섯명 합아홉명이다

官私鐵道를莫論코 全朝鮮에移動警察

―各自動車線路停留所에도乘客監視―

大演習四十日間特別警戒

래십월에 호남(湖南)지방에서거행하는 량사단의 대항연습(演習)에대하야는 그간경무국에서 고등과장회의와 관계도경찰부장의협의 도군사령부 헌병대등과협의를 미치엇는데 다시 이에대한 구체적실시방침에대하야 금경무국 보안과에서 립안중인데 그중중요한것은 이동경찰을 전반적실시로 오는중순부터점차적으로 실시하야 십월말일까지 전조선간철도(사설철도도)에전부 이동경찰을 실시한다는데 호남지방의국철간선과 경남철도연선은 경무국에서 직접실시하고그외의각도는 각기도에서 실시한다고한다 평부선대의 국경헌병대와 국경선 부조선과 신석(新潟)간의항로 관부(關釜)간련락선 등에대한 이동경찰의 려시활동을 중요시하고 자동차선로의 발착지정류장에도 경계의눈을 살피게하야 약사십일간은 전경찰력을 총동원하야 비상경계를 실시한다고한다

運動競技

朴在敏君優勝 實業團卓球大會

朝鮮卓球協會主催의 第三回京城實業團對抗卓球大會는 一日午前十時부터 米倉町에서 擧行하엿는데 個人戰에는 總督府의 朴在敏君이 優勝을 獲得하엿고團體에는 亦是總督府軍이 優勝하엿다한다

◇團體戰第一回戰

○城大醫員A 2……1 金融組合×

○總督府C 2……0 昭和俱A×

○鐵道局 2……0 朝鮮運送×

○總督府B 2……1 李王職×

○總督府A 2……0 昭和俱B×

○總督府E 2……0 城大醫員B×

○明星俱 2……0 總督府D×

【第二回戰】

○總督府C 2……0 城大醫員A×

○總督府B(勝)……(棄)鐵道局×

○總督府A 2……0 總督府E×

○[illegible]林俱 2……1 明星俱×

○總督府A 2……0 [illegible]林俱×

○總督府B ……(棄)總督府C×

【決勝戰】

○總督府A ……(棄)總督府B×

◇個人戰

曹明俊(總府)3…2 [illegible]河洪(昭林)

金相善(同)3…1 張[illegible](明星)

朴在敏(同)3…0 崔炳夏(金融)

早瀨(同)3…2 莊司(城大)

【準決勝戰】

曹明俊(總府)3…0 金相善(總府)

朴在敏(同)…棄 早瀨(同)

【決勝戰】

朴在敏(總府)…棄 曹明俊(總府)

堀口選手獨立으로 徐君堀口戰實現?

피스톤堀口라는 別名을갓는日本拳鬪界의 第一人者 堀口恒男選手는 그의所屬團體인 日本拳鬪俱樂部(渡邊勇次郎道場)와日本拳鬪聯盟과決裂하야 對立以來適當한相對者와 對戰조차어렵든바 堀口選手는 突然日俱를떠나 獨立을宣明하엿다 이로써 一般拳鬪界의 渴望하든 徐廷權對堀口의決戰이 實現케되엇다

殖銀3 川崎2

川崎軍對殖銀의 野球戰은 一日午後三時五十四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竹內(球) 藤井 中村 日置(壘)西氏審判 川崎先攻으로 開始한바 川崎는 一回一番打者 富永의二壘打와 敵失로 一擧二點을 先取한後 李秦敏、若林兩投手의 投手戰을 演하며 殖銀은 五回 川崎攻擊이 끗날때까지 二對零으로 리-드를 당하엿든 殖銀은 九回戰에 山崎二壘打로 나아가 二死後 松本 中堅 犧打의 本壘打를처서 二點을挽回하야 2對2同點이되여 延長回末에 드러가 熱戰十四合 十四回末에 殖銀 若林投手 一擧本壘에 드러와서 決勝의一點을 어드니 時間六時十分 殖銀의一點差로 勝利하엿다

◇投捕=川崎(若林、小笠原) 殖銀(李秦敏、紅谷)

川崎 200 000 000 000 00

殖銀 000 000 002 000 01A

3A―2

五國對抗陸上 瑞典이優勝

【電通伯林一日發】日本、瑞典、匈牙利、伊太利의 五國國際對抗陸上競技會第二日은 一日午後五時부터 當地포스트-스타디엄에서擧行한바 百米에鈴木選手는一○秒六로 랩을올린코 棒高跳의西田選手는 四米二○의 日本最高記錄으로優勝 三段跳의大島選手는 一五米二九를 뛰어 一位를獲得 最後의一萬米에는村社選手가 二着의選手(伊)를百五十米나머러트리고 三二分四二秒로優勝 第一、第二兩日의總得點에잇서서瑞典은五六點으로第一位를占하고 獨逸은五二點으로第二位 匈牙利는 四○點五로 第三位 日本은 三三點으로 第四位로되고 伊太利는 二六點五로第五位이다

芬蘭選手新記錄

【헬싱기一日發聯合】芬蘭國의長距離選手『라데이』氏는 九月一日에 當地에서 二十五哩를 二時間二十六分四十七秒로 走破하야 一九一三年以來 英國選手『[illegible]라-』君이 保持하엿든 二時間二十九分四十一秒를 突破하엿다

運動界人事

▲洪永熹君(徽文高普陸上競技部主將) 渡日東京서열린全日本中等大會投圓盤에優勝하고 今二日朝凱旋 人事次本社來訪

남모르게苦痛하는 無毛脫毛若禿의原因과

털을나게하는原理

田中醫學博士의成功

―說明書無代進呈―

頭髮、眉毛、腋毛、髭毛等의人體毛髮部에 털이 나게되는것은 그곳에各個毛根機能을가지고잇는까닭입니다 卽毛根가 잇고 그毛根는毛細管現象에 依하야서血液中으로부터 營養을吸收하야毛髮을 發生成育식힙니다 그래서이 毛髮發成機能에 病菌侵蝕이 잇든지 藥物等의 機能을停止식히면 毛髮은 依然빠저서드물게되며 甚하면 全部버서지게됩니다 恰似히草木이日光과肥料를주지안으면 말러죽는 것과갓습니다 前帝國大學教授田中醫學博士가 이點에着眼하여 前記와가튼原理를根本으로 털이나는藥『후미나인』을創製하엿습니다。毛髮도草木과가티 毛根部에草木에잇서서 肥料와 가튼營養을주어發生成育을促進식힌다는것이털나는藥『후미나인』의 理論이며實驗입니다 털나는藥으로는 各種多數 其中에는效力이 疑心되는것이업다고는斷言못하나 毛生藥은 爲先第一推奬할에躊躇치안습니다 무엇보다도他藥보다優秀한 田中醫學博士 創製된것 第二에 皮膚病良藥テーム水本舖도 有名한東京藥院의 發賣品입니다 禿頭、若禿、毛根不良、脂肪禿、疎禿、薄眉毛、男女엇지못할곳에 털이업는분 毛不足으로 煩悶하시는분들은 爲先『후미나인』推奬합니다 發賣元은東京芝田村町四丁目東京藥院입니다 新聞名記入申込하시는분에限하야 詳細한毛生藥의說明書를 無代進呈하기로되엿습니다。振替東京三一八三三 毛生藥『후미나인』藥價九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九十錢 送料內地六錢、鮮滿十錢

毛生藥 후미나인 全國藥店有

新築家屋賣買

十一間으로三十三間까지

新築場所 鍾路洞二七

朝鮮建築社

セブランス醫專病院

檢眼無料 京城驛前 電本四七四○

本校眼科教授 本院眼科長 擔任 檢眼

恩給 如何한程度까지도 便宜成事高利借換歡迎 乞試問 京城府笠井町一五○ 朴商會

京城 中等公民學校專修科 生徒募集

○後期新學期開始○晝夜各五十名○願書締切十月五日迄 ○學則要郵券○京城府太平通大漢門橫(電本四、七六一番)

新學期開始 中等科第一部 中等科第二部 九月十五日(第一類甲組)學則二錢切手

各中等學校入學準備 各中等學校上級編入受驗及鐵道從業員養成所遞信官吏養成所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二一六○番)

校舍大擴張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五日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學則要二錢切手校舍運動場敷地二千有餘坪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電本二一六○番)

藥劑師採用

免許狀잇는분을 採用하오니 履歷書持參 來談하시오

朝鮮의代表藥

補血强壯新藥

ロクミン

四大醫學博士의推奬

絶對健康法

適應症 神經衰弱 肺結核 老衰防止 健忘症 盜汗 食慾不振 貧血

定價五○○粒入 三圓 送料三十四錢

發賣元 天一藥房 天一·靈神丸本舖 京城府鍾路

家庭

조서으로 찬바람 문구녁도 막을때
문바르는 조히는 엇던것이 조흐며 엇더케 발라야 환할까

작년에 발럿든 문(門)은 찌저진것을 때우고 떨어진것을 덧부치엇다가 꺼룽이 안스고 때가 끼어서 보기에 흉악스럽습니다。녀름에는 그래도 문(門)을 열어제치고 살아서 별로 상관이 업섯든데 이제는 차차 문을 닷고 지내게 되어 눈에 몹시 띄우게 됩니다。재래로부터 우리네가정에서는 음력 구시월이나 가야 문을 갈아 바르지만 이왕 갈아 바를 빼에는 이만때가 도리혀 조치 안습니까? 쨍쨍한 가을해ㅅ볏아래 시키면문을 닯아노코서는 아모래도 꺼림즉하고 구중중한것이 사실이라 한두달쯤 일쩍이 아니 발러서 조치 안습니까? 그러나 문을 바르는데도 여러가지의 묘독이 잇습니다。지금 그묘독을 전해 드리겟습니다。

위선 창호지를 골라야 합니다。조히를 잘못 골라 가지고는 손씨도 소용이 업게 됩니다。대개 창호지에는 두 종류가 잇스니 하나는 삼첩지(三疊紙)오 또 하나는 롱선지(弄仙紙)라는 것이올시다。롱선지는 빗이 히고 결이 고와 보기에는 물론 조호나 좋아하고 삼첩지는 튼튼할 셈이 조호나

빗치검누르고

결이 껄끄러워 보기에 낫븝니다。그런데 롱선지나 삼첩지에는 또 다각각 조코 낫븐 것이 잇습니다 그래서 롱선지에는 한권에 구십전짜리와 일원짜리가 잇고 삼첩지에는 한권에 사십오전짜리로부터 칠십오전짜리까지가 잇습니다。값으로 보아서 롱선지와 삼첩지는 이처럼 왕청나게 틀리는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삼첩지패가 되고 부자ㅅ댁은 롱선지패가 됩니다。부자는 못되나 가난치 안한 중간내이들은 미다지를 롱선지、덧문을 삼첩지로 발러서 중간파를 이루기도 합니다。그

삼첩지로발러서

려나 가는삼첩지라면 갑싼것보담은 비싼것이 훨씬 낫습니다 비싼것은 그래도 질기어 조선ㅅ조히의맛이 나지만은 갑싼것은 약하고 연하야 거의 양지 조히나 다름이 업습니다。

×

그다음으로 조히의양쪽을 도련치고 또그다음으로 갈근에마치어 마름질을합니다。맵시잇게 바르는데는 도련이 반듯이 필요도 하오나

수수하게바를때

는 그대로두어도 무방합니다。그러고는 갈근에 부러잇는 헌 조히를 뜨더버리기로 하는데 그것도 잘못뜻다가는 시간만 걸리고 품도 숭업게 됩니다 먼저 칼을가지고 사방을 도리어 죽 뜨더노흔뒤 문설ㅅ주마다 물을칠하고 설주에부튼 조히까지 뜨더버린다면 헌조히도 조배가 튼데 다시 쓸수잇고 뭇기도아조수월합니다。그러고는 새조히를 끄내다가 바르키로 하는데 더구나 그것을함부로해서 못쓸것은 두말할여부가 업습니다。첫재로

풀을알맛게개일

것 둘째로 풀을 풀고루 칠할것 셋재로 물을 잘 뿜을것등 가지가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중에도 롱선지는 물에 몹시 약하기때문으로 물을 만히 뿜어서도 못쓰고 물을 뿜은뒤 함부로 자바다려도 못씁니다 롱선지나 삼첩지를 물론하고 우로나 아래로나 한쪽을먼저 마친후 그다음쪽을 버쩍들어서 술쩍노코서 두손으로 좌우편을 살살 자바다린후 풀귀얄로 설주마다 짝짝 눌러서

단단히부처두어

야합니다

×

아조 모양도나고 조히도 수를 하게 하려면 기름을바르는것이 조흡니다 양초나밀조를녹여어 기름을 맨들어 노코서 새로발러 말린문을 하루우에 조이면서 그초ㅅ농을 칠해 갑니다

가을옷준비!
장속에너어두엇든것은 이러케손질을해봅시요

여름동안 입지안코 너어두엇든 의복은 좀나기쉬우니 요사히 선선한바람에내거러 몬지털고 거풍을 시키십시요 그런데 의복은 잘말르고 장속에 습긔가잇고 업슴을 살펴보서야합니다 농속에 습긔가잇스면 곰팽이가생겨서 비단의복들은 몹시 얼룩이도생깁니다 이런때는 흡습제(吸濕劑)가필요합니다 아도리를 벨롤에 종이에나 헝겁주머니에너허 농속 네귀와 중앙에 하나식 너허두면 습긔를 흡수해버립니다 아모래도 국답하거든 볏헤말려다시 쓰십시요 모직물은방충제(防虫劑)를쓰시는것을 이저서는아니됩니다 그리고 모직물은따로히 상자 갓튼데 방충제와 가티 너허두면 농속에너허 두는것보담 채신조ㅅ습니다 방면은 장뇌(樟腦)찬조히 (파라핀紙)에싸서 방충제를 상자속에너허두시요 양복에는 호주머니에너허 양복거리에거려서 방안에거러두어도 좃치안슴니다

世界文藝童話集
학이된잉금님 ⑤
獨逸뷔근헬름·하우푸作 崔秉和

이제 나는 너와너의아버지의 그거만한것의 원수를 갑게되엿다。」

그로부터 긴세월이 지낫습니다 저는 신선과가티 이 다허물어저가는 성속에 단혀서 쓸쓸스럽게 지나고 잇습니다。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미움을밧고 동물들에게서는 천대를밧고 잇습니다。

낫동안에는 저의눈은 아모것도 볼수가 업습니다。밤이되여서 달님이 이낡은성을 창백한 빗으로 비칠때만이 비로소 나는 이근처의 경치를 볼수가잇습니다」

잉금님은 부엉새의 이약이를 듯고 생각하엿습니다。

「우리들사이에는 무삼 인연이 잇나봅니다」하고 잉금님은 말삼하시엿습니다。

「잉금님 분명히 그럿습니다。그까닭은 제가 아즉 어렷슬때 어진녀언네가 학이 당신을 행복스럽게 하리라고 예언한일이잇섯습니다。어떠케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바들지 저는 알고잇습니다。」

잉금님은 그방법을 무렷습니다。

「우리들을 불행하게맨든 마법사는 날마다한번식 이낡은성으로 안놀곳에 날아오는데 그곳에 여러동무와 함께모여서 술잔치를 하기로되엿습니다。저는 지금까지 각금각금 드러다보앗는데 서로자기들이 저질은 납분일을이약이하고 잇섯습니다。어떠면 두분께서 이저바리신 주문도 서로이야기할지도 몰르겟습니다。」하고 부엉새는 대답하엿습니다

「아아! 공주님!! 그놈들이 언제옵니가。또 그방은 어느곳에잇습닛가。」하고 잉금님은 큰목소리로 무릿습니다。부엉새는 잠간동안 잠잣코잇섯습니다。그러다 말하엿습니다。

「잉금님! 엇지알지마러주십시요。당신의 소원을 이루시는데는 한가지조건이잇습니다。무엇이든지 말슴하야주십시요。」

「무슨말이든지하겟습니다」

「그것은 저도함께 마법을벗게하야주십시요。그러케하려며는 두분중의한분이 저와혼인하야 주서야합니다」

애기젓뗀뒤에 무엇을먹여야조흘까
돌되거든젓을뗄일

어린애기는 생후 일년내지 일년반개월만 되면 어머니젓을 먹이지 안허야 합니다 이럴때음식을 잘 선택해먹이기에여간어렵지 안습니다 이것이 애기의발육상태나 체질기타를 일률로 결정하는것은 안입니다만 영양분이 만코맛잇게만 드려 먹여야합니다 먹이는 분량은 모유나 우유에 섭취하는영양분이 하로에얼마나되는지 계산해보지안코는 알수업는 것이나 다만조용식조음식차차차분량을 도다야합니다 우유에다 식빵을 잘게써러너허 약간뻑뻑하게 잘푸러지도록데워서 사탕을 알맛게 너허먹이고 되장국은 간장을 넣으잡랑、갈분랑은 여간 조치안습니다。좀더지난후에는 계란 노란자위를 석거 푸러먹이면 동물성영양소를 취하게됩니다。

우동가튼것은 아주잘으게 끄려서 토마토나 홍당무(닌징)나 감자를 너허 연하도록 끄려먹이십시요

채소류는 조그마치 잘게 써러간장과 사탕을 너허알맛게간을 맛처 잘익히십시요 애기에게 채소는 극히 주의해먹여야합니다 생선인때는 도미나 가재미를잘게이겨 완자를 만드러잘끄리십시요 굽든지기름에 지지는것은 아주해롭습니다。다음좀더 시일이 지난후는 닭고기 아주 연한부분을 골나 잘게이여 아자를 만드러 익혀먹여도 조습니다。

우에말한것을 주로먹이고 간식으로 비스케트나 풀가튼것을 우유에 너허묽신물신하거든 먹이십시요 그리고 애기가 먹은분량이 너머 과한듯한 근심이 날때는 늘대변도 주의해보와야 됩니다만안이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하겟다는것을 늘주의해야 됩니다。

禁酒懸賞文 當選者發表

조선녀자기독교 절제회·연합회에서 저간 금주현상문(禁酒懸賞文)을 모집하엿든바 다음여섯사람이 당선되여 각기상금을밧게되엿다

一等 許潤泰十圓 二等 金泳海五圓 二等 田東波五圓 三等 李明珂三圓 三等 林夏榮三圓 三等 李恩實三圓

紙上動物園 (2) 猛獸篇

아메리카의산중왕 사람을─해치안는『푸─마』
날쌔기로는 맹수중에표범

『아메리카』대륙에서 대표될만한 가장무서운맹수는『푸─마』와『자과─』입니다。『푸─마』를속칭아메리카사자라고하며『자과─』를아메리카호랑이라고하는데 이것은 사자와호랑이가 나지안는고로해서 사자와 호랑이행세를 하게되는것이겟지요、엇잿든 몸집이 사자나 호랑이만큼 크지못하다할지라도 거이방사하고 외양도 맹수의 기품이 완전히 들어나잇습니다。그중에도『자과─』는 누른바탕에 검은점이 얼룩덜룩한것이 모르는사람이 보아 표범으로 알기쉽습니다 다만 몸과머리통이 더크고 다른 특색이 잇습니다。이즘생은 아메리카대륙중부 이남에서 대개나며 일본내지와 조선동물원에 한마리도 와잇지안습니다 그럼으로 사진으로는 물라도실물을 본사람은 별로 업슬것입니다

『푸─마』는 지난사월창경원에 암컷 수컷두마리가 팔려왓슴으로 우리네가 볼수잇습니다만 그나마 창경원에나잇지 동경대판등지의큰 동물원에도 업느니만큼 귀한동물이라 볼수잇습니다。

이즘생은 나무에도 잘올라갈뿐더러 멧십길 놉흔나무에서도잘뛰어 나리는 재조가 잇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자기보다 몸집이 사뭇 큰 말을 무러간다 하는 미국에서는 말울치는목장이 이즘생때문에 상당히 피해보는수도잇다합니다

『푸─마』가맹수로서 무서운맹수축에들지만 사람을 해하지안는다니 별일입니다。일례를드러말하면『푸─마』가잇는 산골작이에는 인가에서 어린애를 박게내노코길러도 겁날일이업답니다 그건엇재그러냐하면『푸─마』는사람을해하지안코 다른무서운즘생은『푸─마』가무서워서 그산에범남을못하는까닭이라고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아닌지 그체모를해가지고 급박한경우에 사람에게 대들지안을리도 업게생겻지만 그러치안흔경우 사람을무서워하야 먼저 피하는것일지도모릅니다 엇더한맹수든지 대개는 다이러하니까요。

다음에는 표범이야기를 하겟습니다。표범은 조선에도 만히납니다。시골서들『호랑이가낫다 소를 물어갓다』하고야단들하는것은 대개가 표범들가지고 호랑이라고 하는모양입니다 정말호랑이、소위 칡범도조선에 굴나러나기야 하지만 퍽드물고 표범이 비교허 흔한셈입니다。

표범은 몸집이 호랑이나 사자보다 적지만 성미가 몹시 괴팍하고 사나운것이며 나무에 잘오르기로는 맹수중에 제일이라고합니다 가령 맹수들의 나무에잘오르고 못오르는것을 차례로 노코본다면、제일못오르는놈이사자 그다음에 호랑이가신시히 조금오르고 먼저말한『푸─마』가 잘오르되 표범만은 못하다합니다 그것그리하고 현재창경원에잇는 표범은전부가 조선것으로합니다、새기를 너무나허 동물원에 벌서 몃납매를 나혓는지모르는데 그것이 지금커럼지라 그동안도 어려워서 다른 동물원으로 동물장사한테로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한다합니다。그래서 지금남은것은 두마리뿐입니다

◇

몸집이 비젓비젓한데 표범이 더무서울까『푸─마』가 더무서울까?『푸─마』보다는 표범이 더 무섭고 더기운이 세리라합니다 엇잿든 세계에서『아세아』대륙에서 나는맹수가제일 무섭다는것이 전문가들이보는바입니다。

◇

『푸─마』는 귀한동물이라 몸갑시 천원 표범은 좋흔한것이라해서 약사백원 가량 하는데 하로에 먹는것은『푸─마』쇠고기 팔백량(八百兩)에 우유한홉、표범은 쇠고기오십량중우유한홉입니다。아침 여덜ㅅ시쯤해서 우유를먹이고 나제세시쯤해서 고기를 먹입니다다만은 요새는 날이 더워 고기가 상하기쉬웁으로 아침에 먹입니다。우유한홉이면 만치도 못한것인데 왜먹이느냐하면 영양상 조흔까닭입니다

끄트로 한가지『푸─마』는사람을 잘따르지 안흐며 표범도 역시 그러하나 암컷만은 잘따르다는것이 여러해맹수를 거두는 동물원 계원의말입니다。

(사진─우의 것은『푸─마』아래것은 표범)

李王職動物園係長 下郡山氏談을듯고서

「어린이祭」

스위스(瑞西)나라의「어린이祭」어린이들은 얼마나 기다렷겟지? 길다란창에 꼬리의 화초들이 오동리를 매고다니면서 갯거워합니다 옷도 때때옷이요 신발도 때때신발 동무들이 한데모여 자미잇게지나는 이「어린이祭」는 그들에게 엇지못할 명절이되여잇습니다

二日(月曜)

◇午後六時 童話 눈먼一學士 李定鎬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全弘鎭
◇同七時三〇分 氣象講話 二百十日과氣象 趙永根
◇同八時 小唱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博物歌 四、휘모리 五、노래가락 李竹葉 崔牧丹
◇同八時三五分 (東) 晋絃樂
◇同九時一〇分 回心曲 金壽男 河龍男

三日(火曜)

▲午後零時五分 로─키─中繼 銀座田盛四館쯧─스社載寫로부터─조─지호와이트一九三五年의스칸달스
◇同二時 趣味講話 朝鮮劇界의今昔(二) 安鍾和
◇同六時二〇分 아코─듸온과클라리넷 合奏 一、양키─두─들 二、오─스산나(클라리넷) 三、旅愁 四、워시─랜드(클라리넷) 五、올─드 블랙─조 六、나의켄터키─의옛집 七、올─드 포─크스、에스
◇同六時三五分 經典解說(一) 韓慶南
◇同七時三〇分 常識講話 社交와洋服의常識 權相老
◇同八時 歌詞 一、길군악 金東壽 高敏德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支那의少女…니─망作曲 二、三、庭園의宴會─코─ㄴ려
◇同九時 漫談講談 孝女의달(一) 朴貫成

曆

九月三日(火) 舊八月小乙酉(大)初六日 壬午·木·室·開
●祭祀·嫁娶·移徙·裁衣·動土·上樑午時·開市納財에宜함
▲白露八日(舊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舊八月廿七日)

短篇小說 福順이 (4)
宋影作 熊超畵

무물광산 사무소는 개천가로 내려와서 산잇을 깍거가지고평평하게 다둥어노흔조금 놉흔지대우에 세워잇다 사무소는 옛간되지아니하나 망주되는 일본사람의 살림집이 겨부러잇서서 그게방아깐 겨로로 합석진용한 주례비슷한 집은 여러채가 허러저잇다 요사이는 아흡부러밤까지 수십개의 방아광이가금을 바시느라고 그근처에 가면 요란한소리가 겨레서짓거리는사람의 말소리도 잘알어듯지못할만하다。멀리서 들으면 이근처에서 땅속이 우는것가티 지동을 하는것처름 느끼어진다。

할구박게 여러무덕이로 싸노흔 광석을 토록코에 실어가지고 사무소로 오고가는 광부들틈에 복순이 아버지 만돌이는 이마에 왜목수건을 질끈매고서 토록코를 밀고 잇섯다

『여보게 오늘 간조 타거든한잔먹세 임자 한잔 내겟나?』

만돌이는 자긔뒤에서 또 다른 토록코를 밀고오든 홍서를 들어다보며 말햇다。

『글세요……내사 한잔낼 글력이 잇나요。형님이 한잔 사시면 따러가지오』

홍서는 교활해 보이는 가는눈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만돌이의 얼굴을 빤히 건너다보다

『쩌! 임자한테서 술한짝대기먹어보앗스면 내가 성명을 갈겟다!』

『그야 형님은 나보다 지내기가 수얼하니까 한잔아니라 열깍대기도 살수잇지만 우리가튼거야 그럴수잇나요。』

『왜? 누귄 별수 잇는줄 아는가?』

『형님은 식구가 적고、돌쇠가 벌고、또 나보다 고입(雇賃)도 만치요、그런데 내야……』

『듯기실타……밧낫 우는 소리!』

어느듯 그들의 토록코는 도광긔(搗鑛機)가 요란한소리로 돌을 깨트리는 커드란 긔게깐압헤 이르럿다。거기에는 요사이에 인부명명을 더모집해가지고 쉴새업시 떠내온 감돌이산가티 싸혀잇다。

두사람이 마침 토록코에 담긴것을 그곳에 쏘다노코 잇슬지음에 고동소리가 뚜하들고 길게 울기시작햇다

『에─ 그누무 고동소리 사람살리누나!』

만돌이는 부지중 기쁨을 못참어 이러케 부르지젓다。그것을 때마츰 그의 겨트로 지나든 감독이 듯고서 곱지안흔 눈으로 흘기어 보고 갓다。

『저새기、왜 나만 보면 독키눈깔을 해가지고 보는지 몰나 쌩 먹아지를 따노흘자식!』

그는 귀분이 조치못햇다。뒤에서는 연송 잇다러서 감돌을 실은 토록코가 만돌이의 서잇는곳을 향해서、어서비뻐오늘하루의 로동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회살가티 달려오고 잇섯다。

『인저는 살엇네!』

『오늘가리 땀 만히흘려보기는 처음일세』

『이래야 륙십전밧게 못버릿네!』

『자네 륙십전 구민가?』

『구려치、나하 적다고 륙십전 구미에다나를 떠여노핫다네』

『아무렴 어쨋과 아─가 가를나구! 당연한일이지』

일들을 맛친 광부들의 허튼수작이 이구저구서에서 려나온다 모도들 주머니에서、혹은 밀집 벙거지 속에서 흩은 점심을 싼가지고 왓든 벤또보자기 속에서 그들의 품갑을 닷새만큼식 모하다가치러주는 사무소의 전표(傳票)를 끄내가지고 사무실압으로 모히엇다。언제든지 이문압헤서 감독이 선표와 밧구어 돈을 주는 습관이엇든 까닭이다。

만돌이는 일원짜리 석장을 감독의손에서 바더가지고 홍서와 억개를 나란히하야 사무소의 축대를 내려왓다 광부들의말을 비러서표현하자면 만돌이는 팔십전구미에 부튼인부엿든것이다。

『가세!별수잇나 돈 타김에한잔하지』

만돌이는 악가한든이야기의 게속을 여기와서 다시 끄내다。

『합시다』

홍서는 대답하고서 군침을삼켯다 한잔소리만 들어도 목구녕이 춤을 삼키고 갈증이 조금은 더러지는것가튼 모양이다 그러나 그는 만돌이의 말맛다나 이때까지 친구간에 제돈내고 한잔 서보일이라고는 업는 사람이다。

그들은 명월루로 왓다。이집외에 술파는집이 업는것이 아니지만 명월이라는 삼십가까운 게집이잇는집은 도대체 게집이술부어주는집은 이집밧게 업는 까닭이다。기드란 방울 장지를 두개를 세워가지고 세칸으로 쓰는 맨끄레ㅅ방이 비여잇섯다。

그들이 드러스자 명월이는 가운대칸에서 내다보면서 커드란 입을 실룩거리며 눈웃음을 짓고는 빈방으로 안내하엿다。조금잇다가 젓시몃개노코 소주를 당으러부은술병을노흔 술상을두 사람압헤 가저왓다。

毒掃丸 (독소환)

世界人類를威脅하는 梅毒의根本治療
諸種의學說은統一되야 드듸여新療法을確立함

이螺旋이梅毒病原菌이다

梅毒이古來로慘害를吾人類에주게되여도其病이不明함으로、治療를할수도업고、但只、蔓延됨에放任하야왓슴으로드듸어惡魔의所爲로써拱手傍觀할外他道가업섯다 그런데進步한近代醫學은드듸어梅毒病의正體를發見하야爾來六〇六號(살발산)의注射療法을發見하야只今은또沃素療法의理論을確立하야서治療界에新紀元을劃得하야最後의一病菌도驅逐하고淸淨한體軀를멘들게되얏다

果然惡魔의使徒인가 暗暗히무머바린梅毒嬰兒

梅毒兒는惡魔의 使徒로서此兒로因하야一家는毗晩되고、家運은衰滅하게되다하야生後에곳傷殺하는風習의地方이다。

元來梅毒은 스피로헤─타라는病原虫이 胎內에潛入하야서生起는病으로 이病菌만絕滅하면 아조실흔梅毒은一掃되다。

또梅毒兒는 父母罪의 果로서 母親의胎內에서梅毒에感染됨으로 어머니의梅毒을治癒하기만하면 梅毒兒가出産되지안는다。

萬一도梅毒兒가나엇다하드라도相當한治療만하면健康을恢復할수가잇다。

梅毒은무섭지안타 다못잘못된治療를 무서워할뿐

梅毒은一旦이것에걸리면皮膚에는더럽게發疹되고、頭髮은脫落하고、코가떠러지고 畢竟에는惡厭步行의自由를일코、또其害는本人에만 끗칠뿐안이라 子孫에까지밋치나니 良藥、適當한療法만잇스면敢히무서워할必要가업다

近代에잇서서梅毒의治療法의變遷推注 射療法의不備

梅毒의病原菌이 發見되야서 以來治療法도 急激히 發達하야 六〇六號(살발산)의 注射全盛時代를招來하엿다 이注射는 感染의初期에는 相當히效果가잇스나 第二期 第三期에잇서서는 效果가充分히나지안코 또日常水銀劑 蒼鉛劑等의 注射를併用하지 안코는안되게되다。六〇六號一劑單獨注射당세再發患者가頻繁히나타나서、二十年間의經驗은『六〇六號注射는 梅毒을完全히治癒하지못하고 特히一劑의 單獨使用은 效果도 물만한것이적다』하는結論을어덧다。

여기에잇서서 새로沃素療法이擡頭한것이다。

最後의一菌이라도殺 滅한沃素療法의威力

第二期、第三期로進行된重症梅毒에잇서서는病菌은諸所에巢窟을맨들어서群生하야、그周圍에硬殼을맨들고잇다、注射藥等은血管內에浮動하고잇는病菌에對하야서、殺傷效力을表示하고잇스나、病巢의深部에잇슴으로서擊退치못한다、그런데沃素는그硬部를軟化하야、內部에進入하야서、殺菌力을發揮하고또病的産物을吸收함으로、極히合理的且理想的의驅毒劑라고賞讚하고잇다。

重症用毒掃丸은沃素療法의眞髓를把握하는것

元來吾人의血液中에는白血球라하는食菌作用을가지고、抗毒素가잇다、이白血球의힘을保持하고增進하면大部分의病菌은滅殺되고만다。重症用毒掃丸은前述한바와가티沃素療法에必要한沃素製劑最大效果를含有한外 白血球抗毒素增進에必要한 各種貴重成分을配合하야잇슴으로 其殺菌力과抗毒素의增進은天下無比라稱하야 只今에는梅毒治療上不可缺한것이라고할만한다。

重症用毒掃丸

適應症

初期梅毒 慢性梅毒 潜伏梅毒 先天梅毒 冷毒 小兒梅毒

梅毒性皮膚病 同內臟疾患 同神經痛 同루마치스 橫痃瘡 性여드름 動脈硬化 甲狀腺腫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十圓、三十圓 三圓、五圓、十圓
普通用毒掃丸 五十錢、一圓、二圓、三圓
小兒用毒掃丸 三十錢、五十錢、一圓

【全國有名藥店에잇슴】

發賣元 東京市神田區花房町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代理店 大連市浪速町·奉天市加茂町 哈爾賓市八站南馬路 日本實業會社

夏天星象

殉情한天上白鳥

紫月仙山의버서둔寶冠?

(㊀) 安在鴻

×

織女는「文星」이다「天女也ㅣ라 主 果蓏絲帛珍寶玉」이라고하니 어떠튼 女性들과 親近한별이라 現代의 女性들도 巧

七夕 에는 이「케가」각시를 우럴러본 新婦하는 제사를 드리는것이 조촐한시즌일이다 織女에서 자치東으로 銀河에 처걸치어굽은 다섯별이 十字로 걸린者잇스니「天上의白鳥」이다 南으로 한변은 훨신멀되 또작고 北의 두변은 매우크되 첫별은더욱커서 一等星이니「떼넵」으로 白鳥의꼬리가 되는者이오 左右에白玉의 날개를 벌리고 긴목을를 이어 南天으로 河漢을 쪼처나르는것이다 白鳥의 머리와胴體와 左右의날개가 되는者는 大體로 三等의 여남은별이니 牛

銀河 에건너질잇스매그 形象에 依하야天津이라고하다「主四瀆津梁하니所以渡神 通四方也라」고해서 天潢 關渡의 모든별과함께 이附近이 上天交通의 孔道인줄로멋엿든것이다 이사이 저녁十時頃이면 바로 天井에 떠잇서서찾기쉬운별이오 附近에 明星이만흔밴더러 星座안에서도 만흔星雲과 新星과變光星이 가장發見되어 항양점의한가지 星界의 寶庫라고하며南天에「南十字」座가 잇슴에因하야 이에 北十字의

稱號 도잇다 이로環明朗한 豪華版임에 [illegible] 끄으린바잇섯든지「明動則 兵起 如 流沙하고 死人이如亂麻」라는 부흥한解說이 부흥者이오 近代의 이별들이 一層明亮한것은 奇異하다

×

中國의 占星術은 그럴지만 希臘의 神話는 [illegible] 小說的이다 [illegible]에서 [illegible] 제가 으뜸이로라고 흰소리 하면서 단이더니 知人키 어려움은神으로도 刑수가 업섯든지 예누리어서 그말을 고지들어「太陽의馬車」를마허서 부리라고

大神 은 그에게 許하엿든것이다 그런데馬車를 끄으는 네匹말은 켸ㅣ론의 어설핌을 벌서 알고드디어 太陽인 불의수레를 물며 어떠버렷다 太陽이란 불행어린 가黃道에서 구울러 떨어진 판인지라 三千里火焰山은 그에比하면 외따이오 버라간에 天地에일대대는 大火災가 일어날뻔하엿다 어허허! 큰일이다「쪼피러」大神은 번개가리 섬이나서 벼락神을 박비불러 켸ㅣ론을저죽이고 太陽을 간신히집어언진後에 켸ㅣ론의 屍體는「레리단」개울에 떠저버렷섯다

却說 이때 켸ㅣ론이한 동무ㅣ 잇스니 이름든「켸누쓰」라 제최에 죽기는 헷슬망정 동무의 情誼야 업슬소냐? 켸ㅣ론의 屍體를 어루만저 슬품을 진정치 못하더니 [illegible]가「켸누쓰」를 잡어 白鳥로만들고 이에 天上에치뜨리어 永遠토록 우세를 하게하엿다고한다 그런지안 그러지? 白鳥는 고개를쳐들고 거지금히 청승스럽기도하다 天津의北으로 中國上代의 風流의名手인造父五星이 모다

별로 되어잇는것은 偶然이나 興味잇다

×

白鳥의 以東은 아주두고 다시大角星이잇는 牧夫座에 올아와서 天市와의사이 北斗자루의 끗별이 가르치는 발래에 아홉의 잔별이 뼹둘러잇서 北편만터젓고 좀생이가티 어염부게 반자대는것은 天冠으로 古名 貫索이니 그모양이 아이들이 돌려안저 遊戲하고가르놋이러지「아기별」의 俗名이 잇다 이즘(八月下旬)에는 九時頃에 天井을조끔비켜 西南비탈에 떠잇는데요 南冠星座가 南天에잇슴에 말맘어

北冠 이란別名도 가젓다 옛날옛날希臘의 神인「빠카쓰」가 그안해「아리아[illegible]의선물로주엇든「七寶의冠」인데 뒤에는 하늘로에올려서「하눌冠」으로 되엇다고하며 그러나 내가雲開說에 依하면「아리아도네의 結婚의선물이란것은 모본고하는말이오 實은織女께서 化鵲渡天하시든때에 九月山紫山峰에서 뒤를딸어 天宮으로奉侍하든 紫月仙女가 그平素에 情人께 씨고벗을든「九龍의寶冠」을 벗어 이고장에 끼워두고 下界의사람들에게

觀賞 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후그 그러한가? 天界의일은 엿사리 안다고할수업다 中國의天文은 이를天市의一部에 滿하야두고「賤者之牢也ㅣ니라」고 獄이오 도賤人만을 가두는데라고 하엿스니 素然치아니할수업고「九星이 皆明하면 天下가亂獄이라」고 그러하시뿐 說明이잇다 그런데 이附近에 이미 紫微天宮이 잇고「하눌冠」의 形象들이 女王의寶冠들에 알마즈니 吾人은 前說을 떨을바게업다.

現代哲學과『人間』問題

—特히『루넷산스』와의關聯에서—

❶ 朴致祐

現代哲學의 動向이 問題될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存在學的傾向 形而上學的傾向의 擡頭를 말하게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좀더 깁히 생각해볼必要가 잇지안흘까

現 代哲學의 主潮로서의存在學 形而上學은 少數의 例外를 除하고는 全然傳統的意味와는 判異한 色彩를가진 存在學이고 形而上學이라고 못할것일까 人間存在와는 何等의 對象的 關聯을 가짐이업시 觀照된 單純히 存在 또는 存在者의『秩序學』으로서의 存在學 形而上學이 아니라, 오늘의 그것은 이러한 從來의 態度와는 判異하게 처음부터 人間存在와의 密接한對象的 또는主體的인 關聯을 豫想하고 出發하는 그러한 存在學 形而上學— 極言하면『人間學的』存在學『人間學的』形而上學이라고못할것일까. 이러한 意味에서 現代哲學의 가장特徵的인 傾向이 무엇이냐 라고묻는다면 나는 서슴지안코 人間問題에對한 主體的인關係心

人 間學的志向의 上昇이라고 對答하고십다. 『存在學的』『形而上學的』이라는 表面보담 더한層깁히 흐르고잇는 現代哲學의『底流』가 곳『人間學的』이라는그것이란는말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現代의哲學은 이가티人間의問題를 自身의 緊急한問題로 問題삼지아니치못하엿든가? 이것이 여기서살펴보려는 나의 첫재되는 課題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問題를 單純히哲學內部의 學派的盛衰에 局限된問題로 바게 取扱치못하는 남어지 上記한 主潮의 推移를單只 定期的인『觀念交代』로밧게 못보다면 이것은 너모나 皮相的인 觀察임을 免치못할것이다 웨인가하면 現實에 對한 最小의 關心만으로서도 벌서우리는

現 代哲學의 人間學的關心의上昇이 單純한 哲學內部의 學派的盛衰에 따르는 流行의 交代가 아니라 外的現實의 推移의 不可避한 反應에 不過하다는 事實을 알수잇는것이니 얼른생각만 하드래도 世界大戰이라는 커다란事件이, 가로노혀잇지안흔가 大戰에 依하야 餘地업시 바서진 一般文化人의 人生觀 世界觀의 再建을 爲하야서만도 哲學이 이가티 性急히도 人間의問題를 自身의問題로 집어올리지 안흘수업섯스리라는것은 잇슴직한 일이아닌가 그러나 우리는여기서 問題를 單純히 大戰과의

聯 關에서만 봄에 굿처다면 이것亦是 너무나 近視的인 觀察에 지내지 못할것갓다 웨인가하면 禍根은 實相이 즉 想像以上으로 멀고도 깁흔곳에 숨어 잇는것가티 생각되기때문이다 이러한意味에서 나는 너무나 迂遠한 感이업는것도아니지만 나의課題의解明을 좀더멀리『루넷산스』에까지 파고올너가서 그것과의 關聯에서 차저보기로한것이다 實로『루넷산스』研究는 現代解明의 唯一은못될다 치드래도 엇지못할 한개의『길』인것이다 더욱이 問題가人間의問題를싸고도는限 더한層그러한것이다.

흔히『루넷산스』는『人間을發見했다』라고한다 이것은 어떠한 意味에서일가? 우리는무엇보담도 먼저이

命 題를 徹底히 究明해둘 必要를 늣긴다. 『人間發見』이라는 이말의歷史的 社會的檢討는 우리의 問題解明에 重大한 端緖를 주는것이기때문이다.

『루넷산스는 人間을發見했다』라는 이命題는 普通 다음과가튼 두가지 意味로使用되는것갓다. 첫재로이말은 일혀든 自我를차저다는 다시말하면『참된人間』을 차젓다는 意味로 使用된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로 使用될때의『發見』이라는말은 自覺이란 意味와 同一하다 둘재로 이命題는(첫재의 意味와 關聯되는것이나) 루넷산스는『古希臘的인人間』의 發見햇다는 意味로 使用된다. 우리가『루넷산스』를 文藝復興이라고

稱 할때의 이復興이라는 두字는 古希臘에의『다시 도라간다』라는 意味, 即『復歸』라는 意味를 多分히 가진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로 使用될 때의『發見』은 單純한 自覺이란 意味보담도『復興』『復歸』『再歸』라는 意味가 더 만흔것이다.

漢字의研究

無謀한歷史家들

(二) 洪起文

大概 漢字를 研究하는 데는 두가지의 갈래가 잇슬 것으로 하나는 文章의 解釋, 古典의訓話 乃至 文獻의考證이요 다른 하나는 오즉漢字란 文字의 發展을 探究하는 것이다。狹義로 보아 後者만이 漢字의 研究라고 指稱될것이나 廣義로 보아 前者까지를 包含시키지 안할 수 업다。中國人들은 벌서 오래전부터 漢字研究에 着眼하야 이미 相當한 業績까지 남기어 잇스니 清朝의 考證學派란 곳 그것이다。勿論 考證學派의 對象삼은바가 오즉 漢字研究로 局限되는 것은 아니겟지만은 그 對象의 中心이 漢字研究에 노히어 잇는 것만은 事實이다。일즉이 朝鮮에도 考證學派의 影響을 바다서 그 方面의 學者가 업지 안햇스니 金秋史, 丁茶山等여러분을 들 수가 잇다。勿論 漢字研究에 對하야서만은 그분들의 努力이 멀리

考證學 派를 미치지 못할는지도 모르지만은 何如間 朝鮮에잇서 漢字研究를 開拓햇다는 點에는 그분들의 功勞를 決코 저바리지 못 한다。그러나 最近에 이르러는 言語學 音學 考古學等 各科學의 도움을 어더서 漢字의 研究가 더一層 進展되야 가지 안는가? 中國의 學者들을 爲始하야 歐米며 日本이며 各國의 學者들은 續續 새로운 研究를 發表하고 잇지 안 한가? 모든科學部門에 亘하야 落後하기 짝업는 朝鮮이어니 漢字의 研究라고 特殊한 異彩를 이루기는 本來 어려운일이다。金秋史나 丁茶山의 後繼나마 업는 터에 그 方面에까지 歐米와 日本의

學者를 뒤조차 따라 가지 안 할 수 업슬것이다。흔히 우리의 碩學鴻儒들은 朝鮮의 漢文을 가지 中國以外의 第一과 가지 自矜自慢하는 傾向이 업지 안 하되 그것은 究竟 一個 誤見에 지나지 못 한다。固陋式 文章이나 漢文歲月에 限하야야즉 도 小中華의 面目을 保全하는지 모르되 그 科學的 研究에 이르러는 歐米를 처다보기조차도 어려운 形便이다。그래도그 뿐이라면 무엇이 大端하랴? 지금 우리는 좀더 딱한 境遇를 當하고 잇지 안 한가? 오늘날 中國人의 漢字音이 漢唐의古音이 아니요 또 그로보아 오늘날 우리의

漢字音 도 三國時代의古音과 꼭 갓다고 斷言하지 못 한다。音이 오죽 그럴뿐이 아니라 訓도 또한 그러타。그럼에 不拘하고 우리의 歷史家들은 오늘날 漢字의 音과 訓을 처들어서 三國 時代의 事實을 推測臆測 하기에 조곰도 躊躇하지 안는다。

그분들의 行動이 僥倖의 的中을 엇는다고 할지라도 科學的의 눈으로 보아 無謀한 大[illegible] [illegible]

그中의 甲은 今日의音을 標準하야『악』或『락』의 近似한 音으로 解釋하고 그中의 乙은 今日의訓을 標準하야『풍』의 近似한 音으로 解釋한다고 하자。그러나 果然 그 樂字의 古音과 古訓이 오늘날과 갓다는 것을 무엇 으로써 證明하려는가? 거긔 對한 確固한

證明이 업는以上은 두편이 다함께 同一한 獨斷을 나리는 것이 아닐까?

이제 漢字에 對한 廣義의 研究를 부르짓는 것은 오히려 閑暇로운 問題일는지 모른다만은 그狹義의 研究만은 目前의 急한 問題로 高調하지 아늘수 업다。그 狹義의 研究야 말로 우리歷史家들의 마흔 言論을 더욱더 光彩나게 하든지 고라未洽으로 돌아가게하든지 最後의 審判을 나리게 되리라고 밋는다。

小品 季節의表情 (4)

李善熙

電車旅行 三十分間! 氣分 如何에 따라 無時下車다.

다음은 이街巷우에『왈스』를헤트리는 流浪의『집시』가튼 女人하나가 더해줄뿐이다.

나는 내감긔의『코ㅣ쓰』를잡기에 決코困難을 늣기지안는다 第一着으로 드러간데가 茶色建物의家具商이다.

藤椅子들! 그물눈가티 설핀 그華麗한 맛이라니 보기만해도 벌서 나는 東洋사람인것갓지안타.

그리고 그古典을 말하는『칼펜터!』 埃及과波斯의 傳說을 짜노흔 그敎養을 우리집 안방에 꾸며기와 그差異點을 贈送하라. 한푼의 저도업시 店員들의 受苦는 크다. 내 罪업는 戮戱의 所致라고할가.

동무를 맛낫다.

「애, 너 속눈섭 자지는 가게를 사지안흐련?」

「속눈섭을 이러케 지저올니다? 西洋俳優들처럼 두눈이 夜光珠로 빗나겟지」

『O、K』

그와 나는 제일 큰化粧品店으로갓다.

점원에게 熱心히 說明해준 결과『品切』이다.

『뷰ㅣ라』그 일흠이다.

나는 숨을 돌려쉬고 지금 救援바든것을 感謝햇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愉快한街上遊戲다.

『빠라질』直輸入의『아이쓰·커피』를 마서야한다.

同僚와함께 자주빗『클라쓰』를 들며『카루소』의『아리아』를 들을때 한 사나히와 게집이 마주면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女人은 목에 가는다란 眞珠목거리를걸고 밀가루로 비즌듯한 두팔을 그대로解放햇다

『아이, 쇄도』로 눈을빼겨게 틔드리고 薔薇色으로 입술을 동글게 그렷다.

종달이처럼 짓거려대는 수작과함께 몸을 비비꼬는 動作들은 자못 複雜하다. 저女人은지금 이른바『明朗』을 팔고잇다 當代女人氣質을 十二分으로發露식히고잇는것이다.

『체ㅣ쳐까짓걸!』

나는 斷然 自信잇는 優越感을 가지고입을 빗죽햇다.

다음으로 그의 必要以上의 魅力에醉해한 瓷觀를 보냇다. 그러나 그다음 내마즌편에안즌 道學者가 내自身을 그以上 蔑視하지안흐리라고 엇지 壯談 하물。

저女人은 窓은 어느 大商店의 金順이거나 어느 大銀行家의 며느님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女人의 華麗한 衣裳이나 寶石에 갓가운 比較的 高貴한 裝飾이 후그에게 꼬화한 鑑賞이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女人의「스카트」以上의 華麗한 치마의「데자인」을 고르기에 一流의商店과 競爭한 藝術家가 必要할 이만큼 아무리 豪奢한 必要가 업는것이 아니냐.

나는 눈을 내려감고 박그로 나왓다.

잠시 네거리에서「어데로?」하고 彷徨한다.

水色의빌을 드리운 高級氷水店의 시언한 불빗이 내게 더한층 不安하다.

나는 떼로 街上의 우울을안다.

이것은 다시幻滅과 恐怖症을 이르킨다. 오늘 기어히 所望했든 都市行은 이로써 中止되고 지금 이러케 파리만 뒤끌는수채구녕을 드려다보고 안젓는理由를 만들게했다.

八月의 이야기는 이로써「되엔드」를짓자. 벌서 저녁이 느젓스니 어서 감자를까고 밥쌀을 씻서야겟다.

어듸가 가을의 두어오리가내 몸에 감긴다.

견뢰수업는 애레지가 또다시 나를 關爾케한다. 끗

米國의學生氣質 (3)

在加州 李定根

「自動車는大學生活을 생각할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自動車를 이야기하고 십습니다 高等學校를卒業하고 大學校에갈때에는 그

父母 는 自動車로써 高等學校卒業과 大學校入學의 祝賀를 代身합니다 大學生活은 自動車로부터 始作된다고하겟습니다 얼마전에는 大學生들이 自動車를 所有하는것을 禁한學校도 업지안햇는가 합니다마는 지금은 어떤大學을 勿論하고 所有를 許함뿐아니라 따라서 停車所의 設備가 펑정합니다 實로 自動車는 米國大學生에게업지못할物件이외다

이러케흔한 自動車中에는 조흔것도 만치만은 大學生自動車라면 十五圓으로부터 五十圓以內가 大槪그

價格 입니다 그들은 各種車에 對한 知識과 修繕하는技術이 넉넉함으로 自動車라는形體만 잇스면 어떤 것이던지運轉케 합니다。例를 들자면 한親舊가 一金七圓을 支拂하고 T型『포ㅣ드』自動車를 사서 修繕하야 가지고 日常通學의『따쓰』로 使用하엿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우리 一行九名을 싯고『스텐포ㅣ드大學』『캘리포니아』大學 蹴球求景을 가는 途中에서 꺼꾸러질때까지는 제 職能을 다하엿습니다。

어느 方面으로 보던지 大學生과 自動車는 언제든지 並行할것이외다 自動車는 敎育的要素에 하나이라고하겟습니다。그런데 이것의 重要性은「大學에서 自動車를

運轉 케하는가?」하는 研究에 잇다고 생각합니다。

『파킹』(Parking)의術語는 自動車를 停車한다는意味를 그대로 利用한것이외다 그런데『파킹』이 學生들의 한가지 工夫외다 저녁을먹고서는 自動車를 타고 市外新作路로나 農村길로『또라이부』를하는것이 普通行客이라고하겟습니다 맛치저녁散步가드시ㅣ 그런데 흔히는 朋友한짝을차저가며 그中에도 만히『또라이부』를하야갑니다 그리고適當한곳에『파킹』을합니다 萬一에『걸』이 同乘하엿고 또갓흔課業이目的이라고 할것갓흐면 難事는업슬것이외다 門달린自動車이라면 한層만열어노흐면

場所 의狹窄은 염슬것이외다 그러나『걸』이 課業에 急悄하다던가或은그리親한處地가안이면 途中에서 自動車의『깨솔린』을 먼저 빼아버리는수도 잇습니다 제가먼길을 걸어서 집에돌아가지아니하면 별수가업슬것이외다 이런까닭으로 동무들새에는『깨스가떠러저서!』하는弄談을 종종듯게됩니다

『뿌싱』(Bushing)이 亦是『따잉』과비슷한것이외다。그러나 自動車는必要치안흡니다。

新刊紹介

▲靑空洗心記 著者盧子泳 京城府堅志洞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定價八十錢

▲監理會報 八·九月合號 京城府冷洞三十一番地 基督敎朝鮮監理會總理院發行 振替京城一八三七二番 定價五錢

▲고향집 新刊特大號 東京市本鄕區金助町一二八 故鄕社發行 定價十五錢

▲啓明時報 第十八號 京城府仁寺洞一五二 啓明俱樂部發行 振替京城九二四〇番 定價九錢

黑風 【118】

韓龍雲 作 金熊超 畵

해후(邂逅) 3

호창순은 어떠한 녀자이며 미국가든 배에서 해적에게 끌녀가서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는 파란곡절이 만하얏다

창순은 본래 광동사람으로 구차한집에 태어나서 일즉 부모를 여의고 옵바에게서 자라낫다 그옵바는 해원양성소(海員養成所)를 졸업하고 선원(船員)으로 다녓스므로 창순은 떠거에 옵바에게 이야기삼어 드러서 항해(航海)에대한 지식을 상당히 엇게되얏다 창순은 고학을 하야가면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친척의도음을 바뎌서 미국으로 류학을 가는중에 배에서 해적을 맛나 붓들려가게 되얏든것인데 그때의 경과는 아래와가텃다

해적들은 창순이를 되는대로 끄러다가 저의 대장의 압헤 꿀렷다 창순은 거의 정신을 일코 몸을버리어 누어다 해적의 대장은 창순을부드러 올려서 자리에 뉘이고 약과 음식으로 구호하얏다 그리하야 창순은 겨우 정신을 차렷다

「나는 너를 첩을 삼으랴고다려왓다 만일 말을 듯지아니하면 당장에 죽일터이니 엇지할터이냐」

하는 해적의 대장은 말소리는 호령스러웟 하얏지마는 얼골에 나타나는 표정은 덜대는듯 하얏다

「예 대장님의 명령을 엇지거역하오리까 저는 본래한미한 사람입니다 대장님의 첩이되는것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듯 하다가이러케 대답하는 창순은 말소리는 나죽하얏스나 마음기운은 놉고 얼골빗은 날카라웟다

「호호호 그래어 그러라고도 할수잇지 나는 삼백여명을 거나리고잇는 사람이다 사람이 세상에나서 삼백여명의 대장이 되는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조고마한 별(星)의 정기라도 타고나지 아니하면 못하는것이다 세상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처 해적이라하야 낫부게 말저마는 우리는 바다의 왕(王)이다 마음대로 빼앗어서 잘먹고 잘입고 잘쓴다 너도 나의첩이 되면 호강은 마음대로 할것이다 너는 나를 무서워할는지 모르지마는 결단코 그러치 아니하다 세상사람들은 호랑이는 무어이든지 잡어먹는 무서운것인줄만 알지마는 그러치 아니하야서 호랑이가 저의 기질과 자식을 사랑하는것은 다른김생보다 훨씬 이상이다 호랑이는 산중영웅이라 하거니와 나는 바다의 호랑이다」

하는 그의말은 무식하고 어리석은것을 여지업시 드러내엇다

「그럿습니다 저는 백년을 토끼의 안해노릇을 하나니보다 하로라도 호랑이의 첩노릇을 하는것이 영광인줄로 생각합니다」

하는 창순은 다시 부끄러운 빗츨 띄엇다

「그러면 오날저녁부터 호랑이의 첩노릇을 하야라 그러면 너는 래일부터 암호랑이가되야서 모든사람이 너를 우럴어보고 무서워 할것이다」

하는 해적의 대장은 거칠우슴을 우스면서 추한눈으로 창순을 본다

「호랑이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호걸남아는 병든녀자를 짓밟지 아니합니다 저는 대장님의 보시는바와 가티 압푸고 피곤하야서 몸을 의일수가 업습니다 며칠동안 조용한 처소에서 치료를하지 아니하면 목숨을 보존할수가 업겟사오니 용서하야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호호 내가 너의거동을보라고 그리한것이다 네가 저모양으로 오날저녁에 나를 모시겟다고 자청을하야도 나는 듯지아니 할것이다 웨그러냐하면 나는 지금은 삼백여명을 거나리고 잇지마는 장차는 삼천여명의 대장이 될만한 훌륭한 인물인 까닭이다 조용한 처소를 정하야 줄터이니 얼마든지 치료를하고 네 마음이 나거든 오너라」

창순이가 추어주는 바람에 고무풍선처럼 공중으로 올나갈듯이 생각하는 해적의 대장은 쾌히 허락하고 창순에게서 빼앗어왓든 반지와 팔목시계를 내어주고서 다른 처소를 정하야 치료를 하게 하얏다

頭痛

眩氣에 胃腸을 强케하는 頭痛疲勞回復藥·먹으면 곳 듯는 頭痛藥·試驗은 單五分間

独逸原名 하이데루

はれやか 하레야가

오ㅡ루ㅡ쓰피ㅡ씨

愛用者五万名에게 團成社招待

一個(五十錢)以上空函으로 特別興行中에도入場 할수잇습니다

只今團成社에서 男子의 世界와 봄의 파레ㅣ드 上映中이니 하레야가空函으로入場하여주시요

(하레야가五十錢以上의空函을入場口에서 내주십서요)空函에入場券의代用엡으로곳入場할수잇슴니다 只今京城市內藥店에 사십서요

옵써ㅣ비스賣出期間 八月十七日부터 九月卅日까지

東京大阪はれやか本舖

主催 日獨醫化學研究所

後援 京城日報社 朝鮮新聞社

頭腦의 榮養劑 하레야가(はれやか)

主婦들께 말슴합니다

一家의主婦로서 健康을必要하시는

우리들이 모다 身體가衰弱하던지病을앓으면곳榮養食이나 榮養劑를生覺하나 頭腦의養分이缺乏하야 頭痛眩氣가나드라도, 神經衰弱, 히스테리ㅣ가되드라도 只今까지한번이나머리에 榮養을줄 것을 生覺하신일이 계십니가.

그뿐안이라痛症과 不快에서어서 빨리 恢復하랴는데만 熱衷하야 解熱劑가 主로되야잇는 一時的鎭痛劑를 濫用하야 胃腸障害를일으키는일이 頻頻하엿슴니다. 여름에는 普通이라도 胃腸을傷하기쉬우며, 일부러배에조심치못한 藥으로 失敗를하지안토록 頭痛眩氣와齒痛이날때에는 꼭「하레야가」를推獎합니다.

『하레야가』는 이러한點을非常히愛護한 日獨醫化學研究所가 頭腦補養의立場에서 腦神經細胞素의同時 머리를活動케하는 原動力인燐及카르싸음을 根幹으로 頭痛齒痛에 빨리듯는 數種의藥과 健胃整腸劑를 巧妙하게集成研究한데成功하야서 新發賣한 頭腦榮養鎭痛藥이올시다.

本劑의 特長은 只今까지 頭痛藥의最大缺點인 胃腸障害의副作用이 업을뿐만이라, 反對로胃腸을 튼튼히하면서 腦神經에 充分히榮養分을 補給함으로 頭痛, 齒痛, 히스테리ㅣ 神經衰弱으로 비롯하야 各種의腦症狀에 病原的인 好作用으로써 作用하는 關係上 效果가자못 永續되는 點에잇습니다 特히 胃腸과感冒에 基因되는頭痛, 眩氣, 宿醉等에는 그以上업는適劑입니다.

이런때에試用하서요

▼觀劇、映畵鑑賞으로머리가疲勞한때

▼事務、工夫가倦怠나서하품날때

▼頭痛、齒痛으로견대기 어려울때

▼잠에不足하고宿醉로氣分에덜불時

▼녀름타고胃腸障害로머리무겁을時

▼감기로頭痛偏頭痛날때

藥價

主治効能

所有垈地處分과 苛酷한 東銀의 態度

"緣故者라도 分讓은 不許"

三百借地人將安之

【元山】동척(東拓) 원산지점에서는 지난 삼십일일 오전십일시경에 동행소유대지(垈地)인 원산부본정오정목 명석동(鳴石洞) 상동(上洞) 광석동(廣石洞)등지에잇는 면적 일만팔천여평에 주가를 가진 차지인(借地人) 이백칠십여명중 이십여명을 비공식으로 동행회의실에 소집하고 전긔토지매도에 대한 동은행의 방침을 통고한바 잇섯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갓다

『지금 여러분이 차지(借地)하고 잇는 동은행 소유토지 일만팔천여평을 어떤분이 매수키로 되여 십삼만오천여원에 결가 되여잇스나 동가옥상이면 연고자인 여러분에게 매도할어 조흘가하야 여러분을 청한것이니 긔왕 여러분이 조직한 차지인조합(借地人組合)도 잇다하므로 귀조합에서 어떤 안(案)을 가젓든지 듯고저 합니다。 그런대 한가지말할 것은일만팔천여평은 절대로 분할해서 매매는 안켓스니그리아시시요。』 운운

이상과가튼 말을들은 차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해로지를개인별로 분할매매를 못하겟스면 각정동별(町洞別)로라도 자긔네 연고자에게 매매하야 달라고하얏스나 동은행에서는 절대로응하지못하겟다고 하얏다。

이에 차지인들은 의론이구구하야 통일된 결론을엇지못하고 헤여젓다한다

이에 차지인들의 말을종합하야보면 원래 지금 동은행의 토지가된 자긔들이 차지(借地)한 일만팔천여평에 자긔들차지인들이 가옥을건축하느라고 몸과모래와흙을 메워서 지금은놉흔한 대지가되엿는데 이것을 칠년전 경성 김긔련(金起鍊)씨가 당시 천주교(天主敎)에서매수하야 차지료를인상하야 전긔토지를 차지한 이백칠십명이 맹렬히싸운결과 동씨는 여의히 지료를받지못하다가 다시금동일은행에 넘겻든것인데 이제다시 일본내지인이 이것을매수한다면 그또한 막대한폭리를 안중에두고하는것이니마큼 차지료를 인상하는일방 요중지대는 분매하야 차지인의가옥철회를 요구할것은 명약관화한것이다 그런고로 차지인들은 전긔토지의 분매(分賣)를 희망한다고한다 그러나 동은행에서는 전부를사겟다면 팔지언정 (가격은 역시십삼만오천원으로) 분매는할수업다하므로 일반은 동문제가 원산의중대문제이니마큼 동행의 태도를 주시하고잇다고한다

家屋熱이나흔惡心

契約金、坪數等詐欺激增으로 平壤署엔說諭願山積

【平壤】최근 평양서 인사상담소에는 가옥매매에 관한 설유원이 답지하여 계원 엇절줄을 모르는 상태이다 설유원의 종류로는 대금의 일할을 계약금으로 건낸후 잔금을 긔일에 지불코저하나 매도인을 맛날수업고 이상일이나 행방불명이되엿다가 나타나서는 이제는 긔일이 경과햇스니 매매는 무효라하여 계약금을 사긔하라는것이 제일 만코 그다음은 평수(坪數)를 사긔하는것 긔일이되여도 집을내여주지안는것등 이러한 설유원은 매일십오륙통내지 이십여건식 밀리어온다

아리유는 최근가옥열이 절정에달햇다가 식어지는 바람에매매는 적어젓고 매매가되대도원활하지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사긔를 계획하는 악덕분자가 만허지는 것으로 압흐로 이런무리들은 더만허질 경향이라한다

實業補習學校

促進運動猛烈

【北靑】북청군에는 지금까지중등교육긔관은 두군데나잇스나 해마다군내삼십여교의 졸업생을수용키에는 오히려부족을느기여오든바 금번당지 식산은행지점장박봉로(朴鳳魯) 씨등 수씨와 맹렬히활동으로 카도릭교회를당지에 오게하고 이여그교회가계획중이든 중등정도의실업보습학교긔성운동을 촉진코자 타불로씨를필두로 당지유지제씨가 궐긔하야 현재맹렬활동중으로 그 추이가 자못주목된다고한다

會寧宣敎會主催 嬰兒保健데이

本報支局後援

【會寧】회녕 주일학교영아부(會寧主日學校嬰兒部)에서는 영아보건상 필요로 인하야 이전부터 매월 일、이차식 구분적으로 보건진찰을 실시하여오던바 금번에는 회녕선교회의생부(會寧宣敎會衛生部)와 주일학교영아부 주최와 본보회녕지국후원으로 전회녕공중위생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야 지난 팔일에 전중생의원(衆生醫院) 장소에서 영아 양육상 필수품진열과 환등영사(幻燈映寫)도하며 영아는 한살이상 네살까지 무료진찰을 시행하야 일반사상에이 유량한 아동에 한하야서는 포상을 하엿고 당일에 헌신적으로 출석한 의사는 삼성의원장 김종진(三聖醫院長金宗鎭) 제세의원장 리강문(濟世醫院長李康文)양씨라한다

歷史的由緖잇는 葛山溫泉探勝團

本報伊川支局主催로

【伊川】본사 이천지국주최로 갈산온천(葛山溫泉)탐승단을 모집하기로된바 금번탐승할 갈산온천은 이천군방장면 구당리에잇는 온천으로서 거금사백오십여년전 리조세조대왕의 발견한려사적유서잇는 유명한온천으로 다만교통이 불편한관계로 널리세계에 선전되지못하야 유감을마지안는바 총독부에서도 이수질를 분석하야본결과 전조선적으로 비류가업슬만큼 함유성분이 조타는것으로 강원도지방비로서 욕조(浴槽)의 개선과 가옥의신축등으로 면목을일신케된바 이에 본사이천지국에서는 다음과가티 탐승단원을 모집하기로하엿는데 만히참가키를 바란다고한다

一、出發日 九月十五日本社伊川支局에서
一、會費 往復十圓(自動車費食費)
一、探勝處 葛山溫水 廢殿瀑布 葛山靈水 葛山瀑布
一、探勝期間 九月十五日부터同二十日까지 六日間

獵奇的殺人事件!

事件發生後數朔만에야 容疑者三名逮捕取調

【平壤】평양서촌(平壤西村)마부민이 꼿노리로 회락경을 일우웟든 지난사월하순경 모란봉공원(牧丹峰公園)에서 꼿구경하다 대취하야 돌아오다가 사람을 죽이고 시치미를 떼엿든것이 괴괴하게도 최근에야 폭로되엿다는 렵긔적 사건이 잇다 피해자는평양부내 선교리(船橋里) 고화엽(高化燁)의 장남으로 그당시부내 교구정(橋口町) 모신탄상회(某新炭商會)점원이든 고정후(高貞厚)(二五)요가해자는 전긔 상회주인김학인 (金學仁) =假名=외 두명으로 사건의 경과는이러타

금년사월 이십일일 점심 때 피해자는 가해자 김외 칠팔명과 모란봉에 꼿 구경을 가서 날이 새이 도록 술을 마시고 도라오다가 업드러진채 두부의 부상으로 말도 못하는피해자 고정후를 실어다노핫슬때에는 꼿절명 되고말엇다

그러나 그때는 행정검시로사건은 간단히 끗마치엇스나 최근에 일으러 고정후의 죽은원인이 술을 먹고 시비를 하든중 가해자들이 모둠매를 따려 말도 못하도록 만든후 피해자의 집에까지 담어다두웟든것이라는 소문이 잇서내사중 사실이 명백한모양이므로 전긔 세명을 가해자로 인치 한것인데 세명은 사실을 부인일관하는모양이어서 취조는 극히 곤난한 상태이며 사건의 진전은 극히 주목된다한다

釀造業者相對 小賣停止抗議

【鳥致院】충남조치원(鳥致院)시내에 잇는 삼개소의 주류양조장(酒類醸造場)에서 주류를 소매함으로 소매를 본업으로 삼고잇는 음식점영업자들이 대타격을 밧고잇슴으로 소매를 중지하여 달나고 양조업자에게 수차음식점영업자로부터 다협하잇스나 듯지아니 한다고 음식점영업자들이 련서하야 조치원 경찰서와 대전 세무서에 진정코저 방금 준비중이라고 한다

國境의少年少女 懸賞音樂大會

【新義州】국경에 잇는 소년소녀의 음악지식의 향상과 그룹일을 목표로 새사람에 배양하고숨은천재의발견을목적으로신의주『할렐루야 클럽』에서는작년에도이맘때에 소년소녀현상음악대회를 개최하야 대회영을바덧섯는데 금년에도 제이회로 구웝이십사일 오후여덟시 신의주공회당에서 역시 소년소녀 현상음악대회를 개최한다는바 이에 대한 인긔는 비상히 고조되얏다한다

鶴鳳龍興兩校 不遠間에開校

【伊川】다년 현안중에잇든 이천군 학봉공보교(鶴鳳公普校)와 룡흥공보교 학봉 룡흥간이학교(龍興簡易學校)는 금번 도당국에서 인가되야 불원간 개교케된바 이천군내의 일면일교제는 용탄면(龍灘面)만 실현되면 일면일교가 완성된다고한다

一時悲運傳하든 樓、光兩校에曙光

有志의熱誠으로維持會組織 不足經費를負擔決議

【元山】원산 루씨녀자보통학교와 광명보통학교는 창립이래수만흔 아동을 교육식혀 조선사회에 내여보내엿고 현재도 만흔 아동을 수용하고 잇슴은누구나 잘아는 사실이거니와 이러케 원산교육계에 잇서 공헌이 만흔 전긔량교는 금춘이래 미국에서 오든 보조금 중단으로 일시 비운에 빠젓스나 그후 원산 유지제씨의 열렬한 동정과 적극적 지지미테 서광을 보앗다 함은 긔보 한바어니와 지난 삼십일일에는 전긔 루씨광명(樓氏、光明)량교 당국자로부터 량교에 만흔돈을 희사한 제씨를 시내해동현에 초대하야 감사의뜻을 표하는동시에 금번 일월(一月)부터 팔월까지에 들어온 의연금의 수지보고가 잇섯다고 한다 그런데 이량교의 일년간 예산액중 약삼천여원이 매년부족될 모양인바 이삼천여원만매년 정긔로 들어오다면 량교의 유지가 되지만은 그러나 년년히 삼천여원을 학교당국으로서 모집하기에는 여간 곤난한 일이 안이라고 한다 이에동일 모이엿든 사십여명 유지는 초등교육긔관의 부족으로 매년수백명 취령아동이 배우지 못하고 잇는 현실 원산에서 력사가 깁고 설비가 완비한 긔성된 전긔 량학교를 구하자 안흘수업다는 결론하에 다음과가티 루씨광명량교의 유지회(維持會)를 조직키로 만장일치가결하고 동십시경 화긔애애한 가온대에 산회하얏다고하는데 동지회는 매년 전긔량교의 부족액 약삼천여원을 일반유지에게서 의연을바다 보조하는 역할을 맛텃다는바 그활동기간은 오개년이라고한다 이로써 전긔량교의 지반은 의의확고해진다고한다

維持會
會長朴昌祚 副會長尹海炳 洪淳默 理事韓致恒 金景俊 鑑植範 金酷廷 南百祐 裕基周 車亨恩 金碩鉉 李弘俊 金永根 幹事李成春 韓浩欽

비에 분망중이라한다

人氣沸騰하는 오ー케實演의밤

馬山支局·讀者慰安會

【馬山】본보마산지국에서는 당지석정(石町)시게병원(時計病院)과협력하야 오는四일、五(四五)량일간 오ー케가수실연(歌手實演)의밤을 개최하야 본보독자를 초대위안케되리라는바 오ー케실연의밤은 마산서처음인만치 압밧의대망이 간절하야 벌서부터 인긔가 비등하고잇다한다

地方人事

▲村上武比古氏(朝鮮商業銀行載寧支店支配人代理) 仁川支店轉任人事次本社載寧支局來訪
▲朴容奐氏(西鮮合同電氣載寧出張所主任) 新任人事次本報載寧支局來訪
▲盧榮振氏(豊川面長)黃海線延長陳情次上京中이든바 一日歸任
▲赤木磯太郎氏(豊川有志)同上
▲吳元錫氏(黃海道議員)同上
▲盧鎭世氏(本社豊川支局長)同上
▲植 氏(汶山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 同上
▲申貞均氏(鐘城警務署長)辭任人事次本社鐘城支局來訪
▲權鎭烈氏(高原東京醫院長)開業人事次本社高原支局來訪
◇訂正 本報八月廿八日附 朝刊第二面에 掲載된『黃海署長活動恩山面長檢擧事件』中『面長의姓廷延』은『延』의 誤報이기 玆에 訂正함

市場의移轉說로 投機的建築盛行

虛說에注意가必要

【江陵】도시계획 실시를 압둔 강릉읍은 수년내에 건설계획을 보게될 동해북부선의 연장으로 비약적 발전을 볼것이라 함은 현실이 증명하는바 잇거니와 근자 도시계획상 현재의 시장(市場)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욱정(旭町)에 잇는 어채시장(魚菜市場)을 현재 우시장(牛市場)부근으로 이전한다는 얼토당토안한 풍설이 떠도라 비교적 건물이 업서 한산하든 그곳에다 토와 가면서 집을 건축하는터로 만일 그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것 이라면 모르지만 어채시장이 옴겨오리라고 투긔적으로 다액의경비로 가옥을 건축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식자간에 말거리가되어잇다 한다

綾州名唱大會

陰八月中旬에

【綾州】능주음악회에서는 전선궁술대회여흥으로 본보능주지국후원하에 광대의명창을 초청하여 구(舊)청년동맹강당에서 오는팔월중순부터 삼일간 (음) 주금명창들을 공개하리라는데 최측에서는 대성황을 예긔하고 목하제반준비에 분망중이라고한다

行商人藥먹고 五歲小兒絶命

【平壤】안주군 연호면(安州郡燕湖面)리차세(李致世)의장남 덕순(德淳)(五)은 금춘이래 안질에 걸리어 거의 실명에 갓가웟스므로 평양에와서 교구정(橋口町)에 집을엇고 아들의 안질을 곳치어주고저 매일 안과의원에 왕래하든중이나 별로 효과가업서 우려하든중 수일전 변려상세 전후되어보히는 매약행상인이 차저와서 안집에 썩조흔 약이라하여 먹는 약을 삼원밧고 주고갓다

이약을 어든 부모는 하날이 주신 량약이라 하여 아들에게 먹엿든바 고민을 하다가 숨어끈허지고 말엇다

죽은 원인이 넘우도 긔괴하기 때문에 평양서에서는 도립의원에 의뢰하여 시체를 해부하여 목하검정중이며 일방 매약행상인의 행방을 엄중수사중이다

紛糾中의大成校 不得已臨時休校

【間島】간도 대성중학교(間島大成中學校)에서는 지난 칠일부터 부터 최긔섭 최봉식(崔基燮、崔鳳植)량선생 배척문제로 학생간에 구타 고소 사건까지발생되여 자난 이십칠일 부터는 일등이 휴교까지 되엿다는바 일방은 동교문제의 원만해결이 하로바비 실현되기를 고대하고잇다한다

新興郡下에火災

住家는一戶一棟全燒에不過나 小兒三名死傷慘禍

【咸興】지난이십구일 오후三시이십분 신흥군 가평면 흥남리(新興郡加平面興南里) 신흥국(申興國)방에서 발화하여 동오시오십분까지 동가일동만전소하고 겨우 진화되엿는데 신흥국(申興國)의 손녀금녀(金女)(六) 옥녀(玉女)(三) 의 두어는 맹화에싸여 미처피하지못하고 즉사하고 그외일명은 중상을 당하엿다한다

羅津名唱大會

今月十、十一兩日間

【羅津】오는십일 십일일 량일간 당지 소방조주최 본보라진지국 후원의 명창대회를 당지 상반관(常盤館)에서 개최하게되엿는데 당일수입으로는 소방조긔구구입에 보태기로하고 회장김성현(金聖鉉)씨이하 간위원은

靑丹 第三回黃海蹴球大會

▲時日 九月七日
▲場所 海州郡秋花面秋花公立普通學校運動場
◇主催 靑丹俱樂部
◇後援 朝鮮日報社靑丹支局

堤川 義林庭球大會

▲時日 九月八日午前九時
▲場所 堤川郡廳코ー트
◇主催 堤川義林庭球俱樂部
◇後援 堤川郡廳庭球俱樂部 朝鮮日報堤川支局

馬山 오ー케歌手實演의밤

▲日時 九月四、五兩日間
▲場所 舊馬山假設劇場
◇主催 오ー케蓄音機會社
◇後援 朝鮮日報馬山支局·馬山時計病院

그女子의一生 (58)

春園 作　夕影 畵

그런중에도 금봉은 어느 덧 눈이 붓혓다。 깨어보니 순이 아버지가 벌서 밥상을 바더다 무쭈씬는 소리를들어서 밥먹는 술을 짐작하리만콤 아직도 어두엇다。

『어느새에 일어나서 남편의 밥을 지엇노?』

하고 금봉은 어린애를 뒤쳐업고 남편 숭늉 심부름을 하는 순이 어머니의 모양을 보고 밋기지 아니하리만큼 생각하엿다 저 사내──오십이 넘고 몸은 살이 말려서 갈빗대가 들어나고 배가 옹숙들어간 저 사내는 여름날이 밝기도 전에 일은 조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나가는것이다。 그래서 빼가휘도록──정말 그의 등은 휘엇다──벌어서 처자를 먹이는것이다。

금봉은 일어날까 하다가 도로혀 주인이 미안해할것 가타서 자는체 하고 가만히 잇섯다。 순이와 순이 동생도 그냥 자고 잇섯다。

『오날은 어듸로 가오?』

하고 순이어머니가 문ㅅ지방을 한손으로 붓들고서서 보채는 아이를 허리만으로 흔들면서 뭇는다。

『조선은행 압흐로가보아야알지』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숭늉찌꺼기를 수까락으로 벅벅긁엇다。

『왜 자문안 흙지는 일은 다 끗낫소?』

하고 안해는 다시 뭇엇다。

『긔운업다고 부쳐주어야지』

하고 남편은 수까락을 소반에 놋는다。

『망할놈들。 저의 긔운은 황소만 하던가』

하고 안해는 분개하엿다。

영감은 곰방이에 담배를 담아서 피우랴다가 마누라가 금봉을 가르치는것을 보고 한손으로 밥상을들고 대문ㅅ간으로 나가버린다。 석냥을 긋는 소리가 나고 뻑뻑빠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스르르 열리고 대문밧게 나선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안에서 안들리도록 조심조심하야 대문을 여는 소리가 금봉에게는 퍽슬펏다。

그제야 금봉이가 일어낫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멍멍하고 귀속이 웅웅거렷다。

『어느새에 일어나서요、아씨? 좀더주무시지。이맘때가 되면 빈대도 들어 가는데。 방이 누추해서、어듸 아씨야 이런 누추한 방이야 보시기나 햇겟서요? 저희는 한평생 이러케서 산답니다。 어듸 요새 세상에야 행랑을 그냥 빌려주시는 댁이 만흡니까。이것도만 달에 삭월세가 이원이나 되답니다。 그리고도 안 대청 걸레치고 물 길어대고、또 잔 심부름도 해듭이지요。순아、이년아 일어나거라。 그나그뿐인가요아범이 저러케 늙고、또 지난봄에 그 몹쓸 염병을 알코나서는참 아씨 덕분에 약첩이나 사먹고 낫기는 낫습시오마는 도모지 추서지를 아니한답니다。그러니 하로도 일안 나갈수는 업고──따문 열량 스무냥이라도 벌어야 자식새기들 맥이지를 안습니까。그저 어듸 방세 안내는 행랑방이라도 한간 어덧스면 살겟는뎁시오』

하고 순이어멈은 세수하란 말도 업시 밥상을 차려다가 금봉이 압헤 놋는다。그리고는자는 아들은 마치 무슨 물건모양으로 방 한 편 구석으로밀어놋코 방에 깔앗던 누더기를 이리저리 밀어놋는다。

잠들깬 순이는 아씨가 집에서 가트면 아직 한잠을 잘것이오 아홉시나 열시가 되어서야 붓틀 때쯤해서 일어 나면 화로에 노흔 찌개국물이 다졸비누라 무엇이라 한 마루 버려노코 더운 물 찬 물을 양동의로 하나락이 들여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는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하고 담배를 먹고 그리고 나서도 밥맛이 업다는둥 속이 조치못하다는둥、새로 지은 밥을 다시 끌이라는둥、법석을 하다가 열시 열 한시나 되어서야 상이 나오던것을 생각하고、

『어머니 아씨 세수도 안 하시고』

『무엇에 세수를 하시나 대야도 업고』

하고 순이 어머니는 그제야 점잔흔 양반들은 아츰에 일어나면 양추하고 세수하는 법이 잇는것을 생각하엿다。양추를 하자니 소금이 잇나? 소금이 잇기로니 시키번 호렴을 쓸것지도 아니 하고。

『괜찬타。 잇다가 하지』

하고 금봉은 밥상이란것을 들여다보앗다。밥 한 그릇하고 아까 순이 아버지가 옷쳐우쳐 먹던 그룻김치 한 그릇、그러고 물 한 그릇、그것뿐이엇다。 오직 그것뿐이엇다。

超時代式으로 改裝된 玄關을 뒤니어 館內에 點點한 庭園도 새로히 化粧을하여 味覺의 가을를 마지하기에 遺憾업시 萬般의 準備가 完了되엿음니다

하늘은 놉고 산들산들 부는 爽凉안 가을바람은 庭園에 가득찬 樹木을개벼히 흔들고 잇슴니다 하로동한激務에 시달닌 心身의 慰安과 貴下의 健康을 爲하여 熟練된 一等熟手들이 手腕을다두워調理한 本館自慢의料理를 맛보와주십시요

恒常愛顧하여주시는 諸位의 便宜을爲하야 大、中、小、宴會席設備도 完備되엿사오니 여러분의 社交場으로 만히 利用 하여주십시요

朝鮮料理界의元老

朝鮮館

京城府瑞麟洞一三七

電光 七二五 一七七八

"東光生絲"會社創立
朝鮮製絲工場賃借코
九月五日부터操業

朝鮮人經營의 製絲會社로서 歷史가오린 朝鮮製絲株式會社의悲運에對하야 一般으로 關心을갖고 그更生을期하며 更生을보되더래도 朝鮮人의손에서 떠나지지말기를 바라든바 前經營者이던 永保合名會社長閔奎植氏、朴曾陽氏가 이機關을아조 遺憾으로생각하야 急轉直下로 新會社 맨들기로하고 지난八月三十一日午後十時 朝鮮製絲株式會社側과 工場其他 設備全部를 賃貸借契約을 맺고 昨九月一日에 新會社 設立의 모든手續을 完了하야 다만登記手續만 남기고 新立되어 九月五日부터 오래동안 閉門하얏든 工場을 열고 作業을 開始키로되엿다는바 新會社內容은 如左하다

▲東光生絲株式會社 ▲資本金十五萬圓(四分一拂込 三萬七千五百圓) ▲社長 閔奎植 專務朴曾陽 常務閔有植 支配人崔錫鳳

朝鮮製絲와의 賃貸借契約期間은 五個年이오 賃借料는 年二千圓이라하며 現在 朝鮮製絲의 從業員은 全部 그대로 新會社에서 使用키로되엿다한다 (寫眞은 朝鮮製絲會社)

新會社創立經緯

朝鮮製絲會社가 更生되지못하고 새로히 東光生絲會社가 新設되기까지의 經路는 大體如左하다.

現經營者 金鋼琥氏로말하면 그동안 만흔 損失을 바더왓슴으로 새로이더돈을 내어會社를 更生식힐생각은업고 勢不得已하면 休業을限업시 繼續할 形勢인때문에 現社員과從業員들이 前經營者인 閔氏에게 工場救濟를 交涉하고 朴曾陽氏도 何等의 打開策을講究코저 共同努力하야 閔氏側으로부터 金氏側에게 第一案으로『金氏가 그동안 會社에 쓴돈 二十萬圓은 株로가지고 閔氏와 共同經營하야 될수잇는대로 整理하야 舊債도갑고 會社도完全한것을 만듭자』고提議하얏스나 金氏側에서 不應함으로 할수업시 朝鮮製絲와는別個로 新會社를만들고 朝鮮製絲의工場을 賃貸借하기로된것이라한다

▲社長 閔奎植氏談 東光生絲社長 閔奎植氏는 말하되 朝鮮人生産機關하나가 업서지는것이 遺憾이오 現社員과 從業員의失職問題도 큼으로 熱誠한結果 東光生絲를 만들어가지고 朝鮮製絲의 工場을 賃내어가지고 事業을 시작케되엿습니다 그러나 第一案대로 되엇드면 朝鮮製絲로서 更生되엿슬것을 그러케되지못한것은 遺憾이외다 新會社의 經營方針으로는 될수잇는대로 堅實하게하야 事業自體로서 오는投機性質가-바합작정이라고云云

▲朝鮮製絲 李專務談 閔氏가 일을 맛허 하기로 되어 九月五日부터 工場門을 열기로 된것은 事實이나 그外에 자세한것은 지금 나로서는 말할수업다 云云

湖南旱災詳細內容判明
水稻被害面積 六萬七千餘町步
田二萬五千四百五十町步
根本對策資料報告

【總督府調査】八月末現在의 湖南旱災 全貌는 다음과가티 七割以上 減收面積九萬千六百四十六町步 被害農家戶數 二十七萬五千八百二十九戶에 達하고 總督府에서는 旣報한바와가티 根本對策을 樹立키 爲하야 一日로부터 十日間 旱魃調査班을派遣하는同時에 拓務省에도 右被害를 一日付로 通報하엿는데 그詳細가 다음과갓다

被害總面積=畓六萬七千百九十三町 田二萬五千四百五十三町

內譯=全北 移秧不能 四千四百九十五町四、七割減收 一萬九千八百八十一町四、小計二萬四千三百六十六町八 ▲全南 移秧不能 一萬八千四百三十一町 一、七割減收二萬四千三百九十四町 一、小計四萬二千八百二十六町二

被害農家數 全北罹災農家數六萬七千四百七十六戶、七割減收 三萬九千八百九十二戶、自力更生見込 一萬一千七百四十四戶 救濟를要할것 二萬八千百四十八戶 ▲全南總農家數卄萬八千三百五十三戶 七割減收十萬二千二百二十六戶、自力更生豫想三萬四千三百七戶、救濟豫想六萬八千十九戶▲合計總被害農家二十七萬五千八百二十九戶、七割減收十四萬二千百十八戶、自力更生豫想四萬五千九百五十一戶、要救濟農家數九萬六千百五十七戶

▲全南=山間部海岸線은 普通이나 西海岸과 平野의部分은 極端으로 不良 ▲全北=山間部는普通 水利組合區域은 良好하나 水利組合區域外의 平野部는 極端으로不良

以上과가튼 狀況으로 平均하면 兩道가 모두大正十三年以上의減收가 豫想되며 最小限度로 하드래도 全南五十萬石、全北二十萬石乃至三十萬石의減收를 免치못할것으로 觀測된다

豫想外深刻
部分的으로 太甚
米穀硏究會調査內容

米穀硏究會에서는 調査員을 全南北兩道에 特派하야 旱災狀況을調査케되엿는데 그結果에 依한즉 兩道의 旱災는 部分的으로 매우 深刻함이 判明되엿다 即 大正十三年의 旱災는 全般的으로 三分減收를 招致하엿는데 全南北今年의旱災는 部分的으로 매우深刻한데 兩道의 旱災는 部分的으로 매우 深刻함이라 한다

米國財界明朗化
日本輸出貿易好轉

【東京電話聯合】八月下旬의 對外貿易은 前旬의出超의 뒤를이어 出超二千六百萬圓으로 昭和七年八月下旬의 三千萬圓以來의 大出超를 示하얏다 이것은 生絲、綿織物、人絹織物雜品等輸出의 激增에依한것이오 特히 生絲는米國의 景氣上昇으로 一千三百三十八萬一千圓(一萬九千擔)의 出超를 보엿다 輸出合計의 九千七十萬二千圓으로記錄的數字로서 織物雜貨의 增加는前旬來의大勢挽回를 語하는것인데 NRA崩壞後의 米財界가 束縛으로부터 脫하야 重工業方面에 活況을 招來한 때문에 上旬으로부터 錫、生絲等의 記錄的增加(數量、價格共히)를 보인것이다 如斯히하야 米財界의 明朗化가 日本輸出貿易에 큰 刺戟을 與한이 注目된다한다

米自治管理案
再上程을準備中
總督府農林局은緘口不言
追加豫算提出觀測

農林省에서는 明年度에 再次 米穀自治管理案을 上程하야 米穀需給狀勢의 如何를 不拘하고 此際 根本對策을 決定할 意向임에 工作을 開始하엿다고 傳하는데 이에 對하야 總督府農林局에서는 農林省에서 米穀管理案再上程으로 諸般의 準備를 하고잇슴은 이미 生産調査會 其他의 機會에서 周知한바인데 正式으로는 農林省에서 何等通知가업고 따러서 明年度豫算에도 右計畫을 包含한 豫算은 編成치안코 開議에서 正式으로 決定하고 正式의 通知가잇스면 追加케될것이다고 말하면서 自治管理案의當否에 對하야는 緘口不言이며 自治管理案施行再燃은 朝鮮內民間特히 穀店關係에 벌서 刺戟된 形勢이다 그러고 二日 午前十一時 松井米倉社長은 矢島農林局長과 會見하엿는데 이것은 米倉問題라고말한다

全南棉作
二分一旱炎地

全南의旱災는 棉作區域이 特히 甚하야 全南의棉作全收穫高二分一(二千五百萬斤)을生産하는六郡이 最甚하야 日下結實期에 드러간同道의棉作은 매우悲觀되고한다

朝鮮在米乏顯著
移出米의繼續減退
◇…八月中粟輸入도減少

【二日總督府發表】八月中의朝鮮米輸移出高는 二十七萬七千五百六石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야 二十九萬六千百五十石 即約半減少이엇다 新穀以來의累計는 八百二十萬四千百二十三石으로 前年同期보다 九萬八千二百八十八石의 增加에잇다 그리고 粟輸入은 六萬八千餘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면 三千八百餘石減이며 그累計는百三萬四千餘石으로 前年同期보다 十九萬六千餘石減이엇다

▲米輸移出高 (玄米換算單位石)

	輸出 今年	輸出 前年	移出 今年	移出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輸移入高 (單位石)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輸入 今年	輸入 前年	移入 今年	移入 前年	合計 今年	合計 前年
上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以後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對外貿易
八月入超二百萬圓

【總督府發表】八月中 朝鮮對外國貿易槪算額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輸出	[illegible]
輸入	[illegible]
計	[illegible]
入超	一、九一四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하면 輸出 二十八萬六千圓 輸入 二百十萬九千圓의 增加이며 入超도 百八十二萬二千圓의 增加이엇다 一月以後累計는 다음과갓다

	一月以後累計	比前年同期增
輸出	四〇、六三八	五、〇六六
輸入	六五、五七二	二二、七三八

伊에紛爭問題
和協?破裂?

伊에國交關係는 四日의聯盟理事會가 어떠케될지 簡單히볼수업다『破裂?和協?』을 斷定할수 업는터인데 和協되드래도 失望할것이 업슬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歐洲가 어느것으로라도 安定되면 米國財界는 好調일것이오『월』街가 活氣를 帶하면 自然히 生絲賣行이 活潑해질것으로 이것이 株式에 好感될것이다

新甫穩健發會

九月新甫市勢에 一步를 먼저 踏出한 市勢가 果然 어떠할가? 採算無視의 訂正高는 一巡되엇드인데 今前場新甫는 穩健하야 別無波瀾이오 短期市況은 寄高後伸惱이엇다 新甫十一月限은 過去의 總悲觀으로 賣込하얏던 下期決算의 好況을 알게될時期인즉 悲觀人氣幻滅이라면 新甫發會가 穩健할도 當然한일이나 全般的으로 買付氣勢가 안된으로 急激한 買付가 잇다면 暴落을 招할念慮가 不無하얏다.

日産의强氣觀

日産에 對하야 會社側은 依…

株式 寄高後低 鈍狀

前場伸惱 休日後인 今前場은 米綿低、綿絲低이나 生絲堅强、爲替二十九弗 三十六仙으로 軟落等으로 大阪新甫 穩健이오 短期는 東新百四十三圓五十錢、大新八十八圓二十錢、日産七十六圓九十錢에 買人氣로 寄付되고 大新八圓三十錢、日産七十七圓了이엇스나 高價戻賣物로 伸惱하야 結局再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二圓九十錢 日産二十錢高인 六圓六十錢 大新同價인 七圓九十錢 日魯五十四圓三十錢 拓新十圓五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二十圓三十錢으로 五十錢이엇다

後場低弛 後場은 東新百四十二圓四十錢日産七十六圓六十錢 大新八十七圓八十錢에 軟調寄後東新부터低弛不勢大引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況 二日

計	一〇六、三二一 一七八〇五
入超	二四、九三三 七六七二

日魯戻賣說

日魯는 不換으로買叫되엇는데 多少製品이 高價로買約되엇다하나 不換은 織지못할것이며 減配程度가 問題인즉 戻賣가 더繼續될모양같다

九月市勢如何

市勢를 적게보는사람이 잇는듯하나 昨年과 今年과는 經濟界가 相異하다 昨年은 人氣만의 好勢에 收穫期에 入한터로서 悲觀할것이 업다 가을부터 來年에 亘한 큰 市勢가 반드시잇슬것이라는 强氣論에 對하야 八月 二十日以來 百四十圓臺를 保合하면서 시원스럽게 올느지못하는 東新은 그만큼 無力한것이 아니냐? 大體五月의 發會를 戻井으로하고 中段持合인 市勢이다 今後 强氣論이잇섯다

今日財界 (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單位錢):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ゴム現	[illegible]	[illegible]

十一限이誕生
又復大下鞘로

十一限은 新米出廻期에 受渡되는 限月로서 今朝 阪地百四十丁의 下鞘 東京 百三十五丁의 下鞘로 發會되엿다 昨年同期에 比하면 市勢의 位置가 百九丁以上이나 高位일 뿐아니라 在米의 極度減退를 在米作의 平年作行動을 旣히 一巡한後임으로 當分反撥을 期待키 難할것같다. 그러나 當限의 渡米는 亦然 調達키 難한 狀態인즉 瓦落을 許하지안을것같고 中限만은 地場主力側及 東阪兩地의 有力側賣物이 頻頻하야 容易히 高價를許하지 안을 모양이다

二百十日天候

今二日은 二百十日인바 各地天候는 如左하다

中江鎭 曇	大邱 曇	新義州 晴	釜山 晴
平壤 霧	下關 曇	仁川 晴	大阪 雨
京城 晴	東京 雨	全州 晴	天津 晴
木浦 晴	新京 曇	濟州島 晴	奉天 晴
雄基 曇	營口 晴	城津 晴	大連 晴
元山 曇	靑島 晴	江陵 晴	上海 曇

阪地當中解合
一部만成立

今朝 某消息通에依하면 阪地市場에서는 當限七千石 中限七萬石의 解合이 成立되엿다고한다 要하면 當限은 高橋一派의 絶對買占으로 受米를 하러하는 限月이며 中限은 田中貞의 猛烈買進으로 三十一圓臺를 突破하엿섯다 此兩方의 威力압헤는 對抗할弱派가 업슬뿐아니라 무어보다도 渡米의 蒐集이 如意치못하야 軟派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今後果如何? 反落을 期待하지못할것갓다

仁川在米增加

【仁川】八月三十一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六、一〇六叺의增加를 示하엿는데 在品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 一九九、四九九叺 (民) 四〇、四五一叺 五斗入 四、三〇一叺▲白米 二〇〇叺 ▲正租叺入(政) 八六、九三二叺 (民) 二二、八四九叺俵入(政) 一八、五九二俵(民)二、七九八俵▲大豆 八、八六五叺 ▲小豆 一四七叺▲大麥 (日) 一、三三〇叺 (裸) 五一一叺 小麥一一、七五五叺▲粉粟 四

立會時間繰上
今日부터實施

朝鮮取引所證券部에서는 立會時間을 前場午前九時二十分 後場午後一時二十分으로 從來보다 十分繰上하야 二日부터實施하얏다

二田原取引店開業

二田原取引店은 九月二日부터營業을開始할터인데 登錄番號는五番이오 商標는Ⓤ이라한다

大阪短期取組

	買方	賣方	取組高
日産	三一	五六	五九四〇〇
東新	四一	五一	八三一八〇
大新	三〇	六二	八一三〇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百八十枚

▲帝火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昭和肥料 [illegible] ▲鐘華人絹 [illegible] ▲東拓 [illegible] ▲에다파이新 [illegible] ▲石川島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休日後의 場面은 金利低擡想으로 物色買가잇서서 內債는 各五錢高이오 米貨六分半七十錢 五分半一圓으로 奔騰이엇다

期米 大下鞘로發會

前場小弛 今朝阪地는 中限三十一圓二十一錢인 十七丁高로 新甫十一限은 二十九圓八十一錢인 百四十丁下鞘로 發會되고 東京은 二十九圓七十五錢인 百三十五丁下鞘로 發會되고 新甫十一限은 二十八圓五十九錢인 十三丁高로 新甫十一限은 二十七圓五十錢인 百九十丁下鞘로 發會된後 常地는 中限 八十六錢까지의 小戻을 伴하야 五十五錢까지 跳返하엿다가 阪地五十六錢으로 六十二錢에止 까지 三十九錢으로 四十錢에 戻을止하엿다

後場頭重 後場은 二十七圓

市場六感

▲新甫는 堅實穩健이나 積極的買氣가 乏함이 發會되엿다 ▲市勢의 位置가 高하다 ▲反動市勢는 終熄인것도가트며 新規로買進하라면 買方의責擔▲伊에紛爭擴大를 唯一한 큰市勢의材料로 보는 모양이나 이것을그러케 보지안코 또는 開戰으로 一爆發이면 絶好의 賣場으로보는사람이잇는모양▲生絲는 好勢가 繼續되며 貿易도 大出超를보이며 秋高期待가 相當한지라 一段高가 잇슬법도하지만▲반

米

今朝 阪地는 百四十丁下鞘로 當地는 百九十丁下鞘로 新甫 十一限이 發會되엿다 ▲市勢의 位置가 놉흔만큼 十、十一兩限이 모다 大下鞘로 發會되엇슴으로 此는 賣方보다도 오히려 買方의 買占場所가 되고말엇다 ▲그런대 十限의 大下鞘에는 買進할 餘地가 잇섯스나 十一限의 大下鞘에는 반드시 買方도 贊成한다고도 할수업는걸▲阪地의 當中兩限은 高橋、田中貞兩限의 自由自在로 得縱하드시 큰市勢期待는 좀더考慮가必要할듯한바 果如何?

釜山保合

前日의順調經過로 產地의處分賣物이 多少出現하나 買氣가不撓하야 市勢不變이오 必需向으로八八〇叺의取引이잇섯다 三等三十圓八十錢 四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二等白米 十三圓三十錢

仁川昻騰

阪神地方은 昨日來의 冷雨와 期米의 波瀾으로 入注豫想의 買氣가 擡頭하야 取引이 多少잇는 程度이나 氣配는二十錢昻騰인 ⓔ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二

京城引締

定期의好況과 數行好轉豫想의買가잇서 氣配二十錢引締인 九ⓒ三等三十一圓二十錢

各地正米

買方 地場利喰、株式側利喰、田中貞利喰
賣方 地場賣、正米側賣、馬越

堂島前場情報

【大阪電報】昨日來의 降雨로氣溫이 低下하고 作況이 念慮되어 買進潑했이어스나 利喰과 主力의 新規買로 軟調를 呈하엿다

▲日本內地米 二、九七七袋 ▲精米三五七叺 ▲蓬萊米七四〇袋 ▲作子 一、〇二五叺 ▲蒙二、一二三袋 ▲蕎麥 一、六七二袋 ▲粟一、二一叺

大邱頭重

依然所持는 頭重하나 一方은 高價 不添이오 雙方이 傍觀的으로 市況 沈靜에 推移되어 二等 二十九圓七十錢 四等 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 十二圓丁

群山反撥

地方出廻 稀하고 極히 消極的 依然 賣物은 薄으로 取引이나 定期高를 보고 氣配三十錢 反撥인 ⓔ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六十錢

木浦反落

當限受米가 市場에 出되는데다가 比較的 消化가 되엇스나 氣配二十錢反落을告한 丸木多 三等 三十一圓六十錢 四等 三十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南浦奔騰

實物拂底이데 다가 期米高騰으로 市況이 硬化하야 氣配一圓으로 四十錢奔騰을告한 ⓔ鶴尾三等 三十一圓六十錢 四等 三十圓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株式 二日

◆朝取短期

	前場 寄付	前場 高値	前場 低値	後場 寄付	後場 高値	後場 低値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株名	鑑定	日步	代引	取組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七九四〇 累計賣[illegible]
東株 [illegible] 東京現株 同新 [illegible]

◆東京短期 / ◆東京短取組 / ◆大阪短期 /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二日

◆朝取期米 (當限・中限・先限): 前場 一節～十節、後場 一節～七節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石

◆朝鮮內各地期米 (釜山・大邱・群山・木浦・鎭南浦) 前場・後場: [illegible]

◆大阪期米 前場・後場: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 ◆大阪市中在米高 / ◆東京期米: [illegible]

金融 二日

◆海外經濟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京城手形交換高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對外爲替 /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二日

◆仁川正米 / ◆京城正米 / ◆大阪正米標準價 / ◆京城雜穀 /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糸布市勢 / ◆京城絹布 / ◆日本麥粉市勢 / ◆지카코期變 / ◆鰯油冲價 / ◆鰯搾粕冲價 / ◆滿洲商況 /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 二日

◆大阪綿糸 / ◆大阪棉花 / ◆各地人絹 / ◆橫濱生糸 / ◆大阪砂糖 / ◆海外砂糖 (紐育九月 倫敦九、十月 呱哇十月): [illegible]
現物糖(ST) 賣買中値 二〇・七〇錢 / 現物D格 八二五圓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七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應需 料送先金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劉康益夏商店 仁川期米 株式 仁川海岸町 /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